



원대한 포부 품고 자기발전 노력하길

1학기 동창회 장학금
13억7천여 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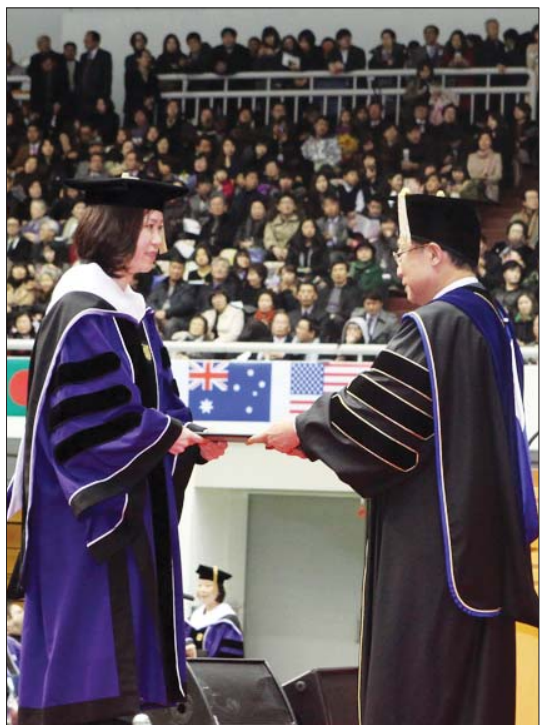


개학 1895년 · 통합개교 1946년

013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여

본회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사진 : 李五峰논설위원, 관련기사 3~5면>

제67회 학위수여식



지난달 26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吳然天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16면>

관악출추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친의 월급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늘 조들렸던 1967년 중학교 2학년 때 1기분 공납금은 1천2백원, 아버지는 1백원짜리 지폐 4장만 주시며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면제받으란다. 설마하면서 눈이 감감, 그러면서 열어보니 안쪽에 5백원짜리 두 장을 감춰넣은 1천2백원이어서 한숨 돌린 기억이 새롭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원예반의 근로 장학생으로 배려해줘 다섯 남매를 가르치시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어느 사람도 넉넉하지 못해 모두 한 톨을 아쉬워했는데, 지금이라고 말할까? 어려운 집이 더 많아졌다는 보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총동창회의 장학빌딩이 세워진 뒤 2년째를 맞아 모교 학생 2백87명에게 장학금이 주어졌다. 1인당 평균 3백만원 꼴인데, 받는 쪽은 미흡하겠지만 합하면 8억원이 넘는 큰 돈이다. 더 많이 못 주는 동문 선배들은 안타까워한다. 하버드대는 학부생의 6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언제 그 근처라도 가보나?

장학빌딩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총동창회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7천여 동문이 참여해 4백8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했다. 눈에 띄는 대기업 참여 없이 모여진 기금으로는 큰 돈. 이 속에는 많은 동문들의 마음과 뜻이 담겼으리라. 이와 별도로 북한의 ‘이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金在益 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의 부인인 숙명여대 李淳子 명예교수가 남편과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에 평생 모은 재산 20억원과 死後 집까지 기증하기로 했다. 천재교육 崔容準 회장도 모교에 20억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서로 경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다. 모교에서 배워 성공한 만큼 모교에 돌려보내어 다른 후배를 더 잘 키우자는 것. 나도 학생 때는 모교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 보았지만 빌딩 건립비로 조금 그리고 우리 과 후배를 위한 장학금도 조금, 내놓았다.

3월에는 6백억원을 들여 冠冠教育재단의 기부로 내년 까지 도서관을 크게 새로 짓는단다. 1백억원 규모의 우정글로벌센터도 부영그룹이 지어준단다. 인프라가 늘어나는 만큼 장학금도 늘어나야 한다. 동남아 등 제3국 유학생들도 목이 마르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장학금을 위한 동문들의 큰 결심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李東植 KBS비즈니스 감사·본보 논설위원)

후배를 잘 키우자는 한마음 한뜻

느리나무광장

‘카르페 디엠(carpe diem)’. 라틴어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공화정 당시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라. 오늘을 붙잡으라”며 바로 이 순간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지금 이 시점이 미래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금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은 언제나 새겨들을 만하다. 현실을 포기한다면 미래도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에만 탐닉하는 종말론적인 처신도 바람직한 태도는 못된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뜨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일이 있다고 믿지 말라”던 호라티우스의 유태를 떠올리게 된다. 미래의 청사진은 불확실해지고 있는데도 서로 자기 몫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모두 마찬가지다. 설령 내일은

어떻게 될망정 눈앞의 밥그릇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도 수명이 기껏 5년에 불과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권력이 넘어가고 정부가 바뀌면서 부처 조직이나 정책 기조도 바뀌기 마련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어딘지 탐탁지 않다. 그러한 소모적인 논란 속에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심사는 흐트러지기 십상이다.

‘카르페 디엠’의 사회

許英燮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본보 논설위원



지금은 복지정책이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마당이다. 국민행복 지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함집자는 게 아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아들의 보육료 지원 방안은 마땅하다.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빈부 양극화에 대한 처방도 절실하다. 그러나 적절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이뤄지는 정책과정을 지켜보자면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다.

반값 등록금 정책도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보다는 분배 위주의 발상에서 시작된 측면이 다분하다. 결국 그 부담은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까지 전가될 것이 뻔하다. 기성세대의 발등에 떨어진 불길을 잡으려고 미래세대에 빚을 져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언젠가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도 이런 ‘폭탄 돌리기’ 정책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고스란히 뒷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이 시대의 누구나 비슷한 공모자라고 한다면 지나친 애갈까.

세상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 50년, 100년 뒤에도 세상은 이어질 것이다. ‘카르페 디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관악시단

봄빛 속에

金后蘭(가정교육53집)시인

봄은

거친 바람 속으로 오네

움트는 꽃봉오리 시샘하는

꽃샘바람

흙 속에 묻혀 한겨울 난

마늘종 새파랗게 솟구치듯

마른 나무줄기에 초록 물기 흘러

연한 잎새 다투어 세상을 보네

우리들 멍든 가슴에도

다시 만나는 생명의 꽃눈

환하게 트이거라

이 봄빛 속에

동문칼럼

모교 교수로 부임한 70년대 초 대학원 입시의 영어시간 감독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마침 ecosystem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번역하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당시 수험생들이 이 단어를 몰라 많은 수험자들이 ‘공명체계’라는 엉뚱한 말로 번역한 것을 보고 실소한 적이 있다. 생태계라는 말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였으며 인문,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위한 과학의 대중화는 매우 절실한 일이었다.

모교 자연과학대학이 주관해 매년 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자연과학 공개강좌’가 금년에 20주년을 맞게 됐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가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돼 매년 1천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강좌가 지닌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

에 쫓여지고 있다. 교수의 연구업적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일은 열악한 기초과학 연구비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었고, 학부제는 세분된 학과에서 4년 동안 전공만 공부한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전공 학문과는 상관없는 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적어도 대학원 교육을 표방하는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학과의 벽은 허물고 보다 폭넓은 학문 분야를 섭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李仁圭
(식물55-60)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자연과학 공개강좌의 기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또 하나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1994년 2월에 첫 강좌를 시작할 때는 5년 뒤에 맞게 될 21세기 자연과학의 흐름을 폭넓고 쉽게 소개해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 언론사와 제휴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초청장을 보내어 자유롭게 청강할 수 있게 했는데, 문화관 강당이 넘치도록 성황을 이뤄 우리를 감격하게 했다.

자연과학 공개강좌 20주년의 회고

라고 생각하며 이 강좌를 기획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9년 내가 전국 기초과학연구조합회장을 맡으며 당시 과기부와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비를 대폭 증액시키기 위해 먼저 교수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잣대로 소위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재 논문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해 오늘에 이르렀고, 이후 자연대 학장을 역임하면서 학과의 벽을 허무는 소위 학부제를 도입해 대학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공과에 대한 칭찬과 욕을 계속 한 몸

이 공개강좌가 지난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된 것은 후임 학장들의 의지와 노고, 그리고 전국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과 응원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개강좌 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자연대 교수들이 모여 집필한 책이 ‘21세기와 자연과학’(1995), ‘21세기 과학의 포커스’(1996) 두 권으로 그친 점이다. 이 공개강좌 내용들이 계속해서 책으로 남겨졌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지적 자산이고 역사의 증거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侑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金貞美, 崔永定



본회 林光洙회장은 “항상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모교와 국가에 기여하는 참된 동량으로 성장하길”

총동창회서만 2백87명에 장학금 8억5천여만원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학부생 2백19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68명 등 총 2백87명에게 8억5천3백81만5천원을 전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2백19명에게 5억2천3백26만9천5백원을 수여함으로써 2013년 1학기 장학금은 총 5백6명에게 13억7천7백8만4천5백원이 지급됐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계층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하는 18대 정부는 소통과 대통합, 나눔을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선택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모교와 총동창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모교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총동창회 또한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동문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에우리피데스는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며 젊은 시절의 학업이 인생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역설했다”고 말한 뒤 “서울대인이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학업 성취와 그에 따른 밝은 미래는 곧 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은 동문 여러분의 고귀한 뜻과 정성이 우리 후배 장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매우 뜻깊은 날로써 귀한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이는 장학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金鐘燮특지장학금 수여



金貞植특지장학금 수여



權永吳특지장학금 수여



金讚淑·吳東英특지장학금 수여



成百詮특지장학금 수여



明泰鉉특지장학금 수여



李海遠특지장학금 수여



鄭潤煥특지장학금 수여



金秉順·李志鎬특지장학금 수여



鄭忠始특지장학금 수여

과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보다 높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룩하려는 각오와 다짐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여러분 자신의 발전은 곧 모교의 발전이자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항상 오늘을 기억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柳陳錫(재료공학2)군은 “등록금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후배를 위해서 기꺼이 그 무게를 덜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한 뒤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그리고 모교의 명예를 위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이끄는 올바른 역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동문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모교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총동창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향후 저희들도 선배님들의 그 뜻을 이어 받아 미래에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다시 후배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하에서 趙玆浩(성악05-09)·蔡周媛(성악09-13)동문이 듀엣으로 ‘내마음의 강물’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金貞植·李海遠·成百詮·金讚淑·郭永驤·鄭潤煥·洪性大·禹仁性·姜寅求·朴浩田·金鐘燮·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趙弼濟·權永吳·金秉順이사가 참석했다.

또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해 明泰鉉前승원기업 대표, 학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그린장학회 金榮鎮총무, 단일시스컴 張炳德회장,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金美惠사무국장, 洪禮杓치과의원장, 화학과동창회 金珞中회장, 가전길병원 朴國洋연구부원장, 운촌문화사상연구회 朴南植회장,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金英姬여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회 李慈倬여사, 아남특지장학회 金綏雄고문, 양천장학회 高文漢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香)

2013년 1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 - 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權志衍(재료공학4)	3,500,000
		朴民革(서양사학2)	3,500,000
		孫元希(의류1)	3,500,000
		承孝珍(화학생물공학2)	3,500,000
		吳兕潭(자유전공1)	3,500,000
		李成仁(언어3)	3,500,000
		全孝彬(정치외교3)	3,500,000
		丁蕙仁(식품동물생명학)	3,500,000
亞南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泰亨(원자핵공학1)	1,803,000
		宋永賢(식품영양2)	3,213,0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 - 57) 가천대 총장	金水蓮(역사교육4)	2,474,000
		池多仁(지구환경과학1)	3,182,000
吳東英 ·金讚淑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 - 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羅炫俊(치의학碩)	3,000,000
		李그리미(치의학碩)	3,000,000
		李有善(치의학碩)	3,000,000
		趙俊相(치의학碩)	3,000,000
楊銀淑	故 楊銀淑(간호51 - 54) 前대한간호협회 재정위원장	金裕珍(간호4)	3,013,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姜玟池(경제3)	2,474,000
		具潤省(화학생물공학2)	3,013,000
		權赫昌(원자핵공학2)	3,037,000
		金宰源(기계항공공학1)	3,206,000
		金泰沆(소비자아동1)	2,643,000
		朴俊英(화학생물공학1)	3,206,000
		李健熙(사회과학1)	2,643,000
		李俊珩(통계1)	3,182,000
		趙玟晶(수의예2)	3,280,000
		洪知佑(전기정보공학1)	3,206,000
		黃採恩(기계항공공학2)	3,037,000
黃海根 ·李金玉	黃海根(토목공학54 - 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金珍宇(교육3)	2,474,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 - 73) 상영무역 회장	高한빈(수리과학碩)	3,325,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 - 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高台宇(건축碩)	2,500,000
		金原爽(전기정보공학博)	2,500,000
		河帝旭(전기정보공학碩)	2,500,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尹泰款(화학4)	3,013,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71) 한국구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 - 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金돌이(법학4)	1,000,000
		李 一(법학4)	1,000,000
		李芝雨(의예2)	1,000,000
		鄭慧麟(의예2)	1,000,000
金鍾祺	金鍾祺(생물교육51 - 55)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	明聖根(지구환경과학1)	500,000
		朴光珍(건축1)	500,000
孫致武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崔철원(화학1)	500,000
		金承熙(지구환경과학碩博)	2,5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 - 52) 임광토건 명예회장	梁智雄(지구환경과학碩)	2,500,000
		高東柱(바이오시스템4)	2,500,000
		金奎男(수의학4)	2,500,000
		金珉廷(윤리교육3)	2,000,000
		金容濊(작곡3)	2,000,000
		金元彬(심리2)	2,000,000
		金在炫(경영4)	2,000,000
		盧玄周(경제2)	2,000,000
		朴秀範(농경제사회3)	2,000,000
		朴鐘權(산업공학2)	2,500,000
		裴之賢(식품영양3)	2,500,000
		禹永鎬(국문3)	2,000,000
		尹惠貞(경제4)	2,000,000
		李宗燾(경제2)	2,000,000
		鄭伍玲(의류3)	2,000,000
		崔東赫(기계항공공학3)	2,500,000
		崔兌煥(건축2)	2,500,000
		李秉贊(경제碩)	3,148,000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 - 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承恩(국악3)	3,976,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 - 76) 세진에이엠 회장	金政煥(치의학碩)	2,0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郭永駢	郭永駢(토목공학56 - 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金旻宣(건설환경공학4)	3,037,000
		金成中(인문1)	3,646,000
		安용현(건설환경공학3)	3,037,000
		尹泳軫(건설환경공학3)	3,037,000
		李琦世(건설환경공학4)	3,037,000
		李泳炫(물리천문1)	3,182,000
		丁敏煥(화학생물공학2)	3,004,000
		洪寅善(건설환경공학2)	3,037,000
李海遠	李海遠(행정51 - 55) 한국우드워드 대표	洪暢皓(재료공학1)	3,037,000
明泰鉉	明泰鉉(기계공학46 - 50) 前송원기업 대표	李保輪(인류3)	2,000,000
		白중윤(중문4)	2,000,000
牧村 5父子	故 金道純(법학43 - 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金度龍(기계공학2)	3,037,000
		丁赫俊(기계공학4)	3,037,000
郭東憲	郭東憲(법학61 - 65) 변호사	金裕政(자유전공2)	2,713,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康惠仁(신림환경2)	3,013,000
崔相弘	崔相弘(기계공학54 - 58) 한일MEC 회장	金聖娥(보건학碩)	2,500,000
		文智惠(환경보건학碩)	2,500,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 - 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金俊成(기계항공공학4)	3,000,000
		曹大煥(기계항공공학3)	3,000,000
陽泉	故 金潤澤(경대원68 - 70) 양천장학회 이사장	朴仁善(의학碩)	5,37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 - 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崔智洙(지구환경과학碩)	1,500,000
		金善曜(의류4)	3,013,000
吳應鉉 ·秋景玉	故 吳應鉉(섬유공학67 - 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南又赫(생명과학1)	2,643,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 - 64) 대성사 대표	金得浩(물리교육3)	3,013,000
鄭在鳳	鄭在鳳(사회사업60 - 64) 한섬 대표	朴柱炫(성악4)	2,000,000
		李憲雅(사회복지4)	3,000,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卓章韓(사회복지4)	3,000,000
		林연화(식물생산과학4)	2,569,000
李鍾憲 ·申甲亨	李鍾憲(경제59 - 65) 덕인 회장 부인 申甲亨여사	鄭燦曜(경제4)	2,474,000
松山	金炯珠(토목공학46 - 50) 삼안전취 회장	權昭瑩(영어교육4)	2,000,000
		金 勳(지구환경공학4)	3,013,000
		潘永珍(농경제사회4)	2,474,000
		成永濟(치의학碩)	5,000,000
		楊鎭和(에너지시스템博)	3,877,000
		李圭烈(농경제사회4)	2,474,000
		李柱容(자유전공4)	3,013,000
		전희진(치의학碩)	5,000,000
		정운영(인류4)	2,713,000
		鄭主會(서양사4)	2,474,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 - 49) 삼양사 회장	공혜정(의학博)	4,992,000
		鄭다운(인문3)	2,474,000
		趙宰亨(의약碩)	5,093,000
		崔요셉(조선해양공학3)	3,037,000
金鍾燮	金鍾燮(사회사업66 - 70)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金귀훈(조경지역시스템3)	3,013,000
		金民洙(화학생물공학4)	3,037,000
		金兌禹(체육교육4)	3,013,000
		金惠珍(기약3)	3,966,000
		朴勳奎(기약3)	3,966,000
		朴相勳(체육교육4)	3,013,000
		朴辰煥(식품동물생명4)	3,013,000
		梁賢明(디자인4)	3,700,000
		尹贊植(식품동물생명3)	3,013,000
		李仁중(체육교육4)	3,013,000
		한재석(조소4)	3,700,000
		黃玄瀚(성악3)	3,966,000
일산회	金振儀(축산59 - 65) 제일실업 고문 일산회 모임	金惠珍(기약3)	3,966,000
		朴振世(식품동물생명3)	3,000,000
李金器	李金器(악학55 - 59) 일동후디스 회장	金玟智(의학碩)	2,500,000
		禹現雅(의학碩)	2,500,000
愼昌宰	愼昌宰(의학72 - 78) 교보생명보험 대표	李裁成(의학碩)	2,500,000
		全重垣(의학碩)	2,500,000
		崔允榮(의학碩)	2,500,000
		崔眞珠(의학碩)	2,5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 - 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 - 54) 관악회 이사	金敬勳(화학교육4)	3,013,000
		金셋별(간호4)	3,013,000
		潘政佑(생물교육3)	3,013,000
		裴鍾佑(사회교육2)	2,474,000
		梁芝丞(생물교육4)	3,013,000
		鄭邊敦(윤리교육2)	2,474,000
		趙基旭(영어교육4)	2,474,000
		曹政輝(교육2)	2,474,000
		蔡鎬旭(국어교육2)	2,474,000
		崔永煥(체육교육4)	3,013,000
		崔睿眞(경영2)	2,474,000
		韓智元(화학교육4)	3,013,000
金斗姬	金斗姬(물리52입) 前속명여대 교수	姜玟娥(건설환경공학3)	3,013,000
		金在賢(건설환경공학3)	3,013,000
金正澈 ·金正湜	故 金正澈(건축52 - 56) 前정림건축 명예회장 金正湜(건축54 - 58) 정림건축 회장	차다슬(건축5)	2,734,000
美大	미대동창회	林慧林(디자인4)	2,000,000
		張朱延(동양학2)	2,000,000
鄭潤煥	鄭潤煥(임학56 - 61) 일성화학 사장	奇兌煥(산림과학碩)	2,500,000
		金智壽(산림과학4)	2,000,000
李雲柱	李雲柱(의학81 - 87) 링크리닉 원장	李惠民(인류4)	2,713,000
壽岩	權永吳(악학55 - 59) 덕흥상사 회장	朴浚洙(악학碩)	4,746,000
		梁俊模(악학碩博)	4,746,000
		尹혜정(악학博)	4,915,000
오공 본드	金昌植(전기공학53 - 57) 오공 회장	邊宮渡(물리천문4)	3,000,000
		趙釜建(물리천문4)	3,000,000
元日	鄭啓泳(상학61 - 66) 원일전선판매 회장	金도연(원자핵공학2)	2,734,000
		金성곤(산업공학1)	3,206,000
		尹영욱(조소碩)	4,746,000
		尹준연(전기공학碩)	4,046,000
		李호석(전기공학碩)	3,877,000
		정진욱(경영碩)	3,317,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 - 56) 대덕전자 회장	金珍成(전기정보공학4)	3,037,000
		金진영(전기정보공학3)	2,734,000
		金홍찬(전기정보공학3)	2,734,000
		李영훈(전기정보공학4)	1,519,000
		李준일(전기컴퓨터공학碩博)	4,046,000
		장창원(전기컴퓨터공학碩博)	3,659,000
		정성환(전기컴퓨터공학碩博)	4,046,000
		鄭承汎(전기컴퓨터공학碩博)	4,046,000
		蔡武辰(전기정보공학3)	3,037,000
		洪仁智(전기정보공학3)	2,734,000
徐廷和	徐廷和(법학51 - 55) 새누리당 상임고문	康永竣(행정학碩)	3,148,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 - 50) 세양주택 회장	金建佑(식물생산과학1)	3,182,000
		梁娜瑛(생명과학1)	3,182,000
		崔창락(전기정보공학1)	3,206,000
曹基浩 ·李英子	曹基浩(화학교육54 - 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李英子(생물교육56 - 60) 여사	金娜伶(화학교육2)	2,500,000
		金예슬(교육2)	2,500,000
		徐柱漢(생물교육2)	2,500,000
		李炯炫(화학교육3)	2,500,000
		李貞遠(생물교육2)	2,500,000
		趙光洙(물리교육2)	2,500,000
柳重熙	柳重熙(기계공학53 - 57) 남성산업 회장	吳光錫(기계항공공학博)	2,000,000
		李희석(엔지니어링계론碩博)	3,000,000
具平會	故 具平會(정치47 - 51) E1 명예회장	南宮惠輪(의학1)	5,102,000
		南基皓(수학교육2)	2,482,000
		昔智元(환경보건碩)	3,851,000
		李星煥(지리교육2)	2,713,000
		趙娟頤(보건학博)	3,851,000
		朱信鴻(SMBA碩)	10,570,000
		洪宣和(독어교육2)	2,474,000
李禎相	李禎相(상학59 - 65) 보생 회장	崔鍾祐(조소3)	3,700,000
李禮植	李禮植(악학46 - 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洪恩眞(악학2)	4,539,000
李埈鎔	李埈鎔(경제56 - 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郭南輪(식품영양3)	3,012,000
		金秀彦(응용생물4)	3,013,000
		金修廷(건축2)	3,037,000
		金慧九(건설환경공학4)	3,037,000
		吳東一(조선해양공학3)	3,037,000
		李健熙(전기정보공학4)	3,037,000
		朱二永(의예2)	3,111,000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건강관리법 중에는 웬만한 현대식 운동법보다 효과적인 운동법들이 적지 않다.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않고 손 하나로 문지르고 두드리고 꼬집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여러 가지 기법들의 효과를 알아보자.

△**머리 두드리기**: 엄지를 제외한 양손 8개의 손가락 끝은 가볍게 구부려서 머리 위에 올리고 두피를 두드린다. 가볍게, 강하게 리듬을 타고 머리카락 위를 여기저기 두드리면 두피가 자극돼 머리가 맑아진다. 공부를 하거나 사무를 보다가 지루해져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졸릴 때, 허리를 꼳꼳이 펴고 앉아서 두드린다.

△**눈알 굴리기**: 머리를 똑바로 세워 정면을 향해 고정된 채 시선만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인다. 상하 20번, 좌우 20번을 움직인 뒤 대각선으로도 움직여 준다. 다음엔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10번 이상 돌려본다. 손을 비벼서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눈 위에 대고 지그시 눌렀다가 빠른 속도로 손을 떼면서 눈을 번쩍 뜨는 동작을 한다.

△**혀 굴리기**: 입속에서 혀를 움직여 입천장을 핏거나 돌돌 말고 펴기를 하고, 입밖으로 내밀었다가 넣기를 하면서 혀 운동을 하면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좋아진다. 혀에는 내장 각 부위와 연결되는 반응점들이 있어서 혀 운동만으로도 내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잇몸 마사지**: 입을 다문 채 양쪽 손가락 세 개씩을 잇몸 부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눌러 비벼 준다. 잇몸 마사지 효과로 치아 뿌리가 튼튼해지고 잇몸도 강화된다. 위아래 치아를 음식을 씹을 때처럼 움직여 ‘딱딱’ 소리가 나게 마주치는 운동을 ‘고치법’이라 하는데, 치아를 단련해 강하게 만들어 주는 전통적인 운동법이다.

맨손으로 하는 11가지 운동

△**귀 잡아당기기**: 손가락으로 귀를 잡아 누르고, 당기고, 비틀고, 비비고, 두드리면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극하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식욕 억제, 식욕 증진, 수면 유도, 정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얼굴 두드리기**: 손바닥을 펴서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면 혈관 순환이 좋아져 고혈압, 동맥경화가 개선되고 혈색이 좋아진다. 눈, 코, 입과 턱 주변 등 얼굴에는 미세한 경혈점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 얼굴을 두드리고 문지르는 동작으로 전신의 활기를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깨와 등 마사지**: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해 주면 좋다. 뒷목과 어깨를 지그시 눌러 주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움켜잡아 지그시 누르는 지압을 하면 피로가 풀린다. 중풍 예방과 함께 전신 장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배, 팔다리 두드리기**: 배와 팔다리를 약간 아플 정도로 자주 두드리면 소화가 잘 되고, 피곤이 풀리며,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양쪽 무릎을 두 손으로 두드리면 관절이 자극돼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므로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문 조이기**: 어린이들의 항문은 체온계를 꽂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있는 반면 노인들의 항문은 조이는 힘이 약해 혈령해져 있기가 쉽다. 비대를 사용하거나 비누를 사용해 물로 깨끗이 씻어 준다. 평소 항문을 오므리듯 당겨 주고 풀어 주는 훈련을 반복하면 단전도 강화돼 기운이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진다.

△**손뼉 치기**: 손뼉 치기를 자주 하면 손바닥의 반사구가 자극돼 전신의 장기가 활성화된다. 손바닥을 힘있게 한 번 마주칠 때마다 4천개의 건강한 세포들이 새로 생겨난다고 한다. 소리나는 것이 거슬리면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치도록 한다.

△**발바닥 자극**: 발바닥을 주먹을 치고, 발가락을 전후좌우로 돌리며 비틀고,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이나 볼펜 끝으로 지그시 눌러 주고, 발목을 돌려 근육을 풀어 주면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있다. 엄지를 이용해 발바닥 한 가운데를 앞뒤로 오가며 꺾꺾 눌러 지압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참여·협력·영광 부문 후보 심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尹勤煥·李金器·孔大植·郭永驤·李炯均·辛鉉雄·金一燮·胡文赫·南益鉉운영위원



장학연구지원사업 소위원회

동영상 강의 준비과정 점검

본회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1층 라쿠치나 회의실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학연구지원사업은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학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주요 강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회가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별 소위원회를 두고 실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辛鉉雄(지리64-68)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林哲一(교육82-86)교육부처장, 張素媛(국문80-84)평생교육원장, 공대 李信亨(조선해양공학86-90)학사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 민혜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회 위원 중 한동대 崔道成(경영70-74)부총장과 모교 종교학과 裴哲炫교수는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등이 참석했다.

孫一根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제15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 부문에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명예교수, 협력 부문에 덕흥상사 權永昊(약학55-59)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중견석좌교수를 선정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7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하지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해 9명의 동문이 대상 후보에 올라, 2시간여의 엄정한 심사 끝에 세 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13년 1학기 강좌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모교는 본회의 지원을 받아 전체 13개 과목, 총 3백15회 동영상 강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강좌 2개를 포함해 총 3개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며 여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또한 영어 자막 처리를 할 계획이다.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강의실 개선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배정된 강의실에서만 진행하기로 한 영상 촬영은 강의콘텐츠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향후 교수 연구실 또는 스튜디오 자체 녹화 등의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강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선 강의시청 후 토론 및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 방식 도입, 구체적 성과를 얻는 프로그램에 다양한 어드밴티지 부여 등도 검토 중이다.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이전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대동창회

재학생 20명에 장학금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자영(법대원3년)·채무성(법대원2년)·김찬미(법대원1년)학생에게 6백73만3천원씩, 김충녕(법대원3년)·김현지(법대원3년)·나스란(법대원3년)학생 등 13명에게 3백36만6천5백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법학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승섭(법학4년)학생에게 2백47만4천원, 김지수(법학4년)학생에게 2백22만7천원, 이상수(법학4년)·이현주(법학4년)학생에게 1백23만7천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卞柱仙회장, 모교 사대 金鍾旭(지리교육71-75)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관·범은·천재교육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관장학회에서 김민지(생물교육)학생 등 5명에게 1천3백68만7천원, 범은장학재단에서 박재승(물리교육)학생 등 5명에게 1천3백99만5천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1년 2월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모교 학술장학기금으로 쾌척한 20억원을 재원으로 마련한 천재교육장학금 수여식에서 방평안(체육교육)학생 등 20명에게 5천2백46만2천원을 전달했다.

상대동창회

80명에 1억9천만원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동창회는 이번 학기 장학생 수를 지난해 8월에 비해 20명 증원해 총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교 김병규(경제4년)학생 등 경제학부 40명과 고대호(경영4년)학생 등 경영학과 40명에게 장학금 1억9천7백92만원을 지급했으며 학술연구비로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成耆鶴회장,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명예회장, 금토상사 韓英國(경제50-54)회장 등 9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다. (載)



趙祐列·張文翼동문, 林光洙회장, 曹重鉉·廉英恩·都 園동문

총회서 유공동문 16명 시상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字)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관악회 李禮植이사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많은 약대 동문들이 국내외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정부 기관 등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약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와 국가 전체의 건강 보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약대 동문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자”라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趙祐列(약학65졸)부회장, 張文翼(약학65-69 인우약국)·金

佑榮(약학67-71 명약국)·曹重鉉(약학68-72 삼천약국)·廉英恩(제약69-73 아신기술 이사)·都園(약학84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전무)동문에게 총동창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李叔妍(약학65-69 삼육대학교수)·許鏡和(약학74-78 한국아이엠에스웰스 대표)·金香叔(약학77-81 모교 병원 약제부장)·朴根熙(약학79-83 덕인약국)·金五禮(제약79-83 화인팜약국)·趙泰心(제약79-83 골드로즈약국)·金義英(제약80-84 수유상록수약국)·楊峻昊(제약80-84 김&장법률사무소)·李美玉(약학81-85 모교 약학과 교수)·차상화(제약96-03 W-store데이지약국)동문에게 약대동창회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 李聖愛(약학62졸 가영약국)동문에게 감사패를, 鄭永淑(약학69-73 중구약사회장)·曹永寅(제약80-84 노원구약사회장)·延濟德(제약84-88 용인시약사회장)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만 평

李元馥



ACAD동창회

李弼雨회장 취임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모교 행정대학원 金俊基원장을 비롯해 徐廷權·崔烈坤·金演洙·李廷益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20대 회장에 취임한 李弼雨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분야 출신인 훌륭한 고위 엘리트간 교류를 통해 막강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문 모두가 ‘We Serve’ 정신과 참여·친목·발전을 선도하는 이 시대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감사에 李相永(40기)·李鍾溍(41기)·林香淳(45기)동문을 선출했다.

의대동창회

수담 나누며 친목 다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2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전홀에서 朴商弘부회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조별 인원에 따라 스위스리그 및 풀리그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黃亨宰(의학66-72)동문, 준우승 金潞經(의학58-64)동문, 행운상 金炳燁(의학50-56)동문 ▲B조 : 金淳會(의학50-56)동문, 준우승 金京來(의학72-80)동문, 행운상 李相完(의학55-61)동문 ▲C조 : 朴潤根(의학88-94)동문, 준우승 李庸圭(의학54-60)동문, 행운상 沈英輔(의학55-61)동문

한편 21일 함춘회관 1층 사랑방에서 朴容晔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해외연수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崔相植(의학90-96)·崔竣一(의학90-96)·元鍾現(의학91-97)·金起範(의학92-98)·金泰完(의학93-99)동문에게 5천달러씩 총 2만5천달러를 한화로 환산해 지급했다.



金明國·朴健培·金羽聲·邊碩斗·金秉燦·李在一동문

朴健培회장 선임·동문상 수여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2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건배치과의원 朴健培(치의학70-76)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차회장은 “기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 동문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창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故 丁東均(치의학56졸)동문, 협력부문에 邊碩斗(치의학53-57)동문, 영광부문에 金羽聲(치의학62-68)동문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을 전달

했다.

邊동문은 학술집담회를 주관하면서 동기회 30년사, 50년사를 편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丁동문은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창립발기인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치의학 분야의 국제교류 발판 마련에 기여했다.

金동문은 스마일재단 제3대 이사를 맡아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비 지원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신임 감사에 黃義康(치의학61-67)·白純之(치의학63-69)·洪禮杓(치의학65-71)동문을 추대했으며, 崔珣哲(치의학73-79)교수와 모교 치의학대학원 洪性頭(치의학84-90)학생부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載)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에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최우수 졸업생 28명 격려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2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崔翔五상임부회장, 모교 공대 李愚日학장

등 1백7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崔翔五상임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李愚日학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된 주영하(건설환경공학부)·

남성민(기계항공공학부)·류지훈(재료공학부)·김주연(전기공학부)·강지훈(컴퓨터공학부)·채인석(화학생물공학부)·문현식(건축학과)·박새롬(산업공학부)·김진솔(에너지지원학과)·김동욱(원자핵학과)·전준석(조선해양학과)학생 등 28명의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으며 졸업생 대표로 강지훈 학생이 답사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와 가족들은 오찬을 나누며 자녀의 영광스러운 수상과 모교 졸업을 축하했다.

건축학과동창회

장학금·감사패 수여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珪載)는 지난 2월 4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감사에 李賢雨(공업교육75-82)동문을 선출했으며, 졸업생 30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어진 신년하례회에서 모교 田鳳熙(건축81-85)학과장의 학과 현황 소개가 있었으며, 金治經(건축82-86)동문이 회원 열람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시연했다.

한편 朴永鍵(건축57-61)前회장과 吳光錫 前학과 사무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또 명예교수들이 출연한 장학금을 총 11명의 재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했다.

대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를 더하며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상"이라며 "수상자 여러분은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업적을 통해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시는 것은 물론 AMP동문의 이름을 한층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경영대 金炳道학장은 축사에서 "영예의 AMP대상자로 선정되신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경영대와 AMP동창회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코리아랜드컴파니 鄭八道(26기)회장, 로만손 金基文(51기)사장, 한맥중공업 張昌炫(57기)회장을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언대원동창회

南善顯회장 추대

언론대학원동창회(회장 金貳煥)는 지난 2월 22일 서울 봉래동1가 한식당 '해우리'에서 신무역 柳鍾秀(신대원70-73)대표, 金貳煥(신대원72-75)회장, 한국민테크 金璋煥(신대원76졸)회장, JTBC 南善顯(대학원77졸)상임고문, 영산대 李珍魯(대학원86-88)교수, 모교 언론정보학과 李準雄(대학원89-91)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오찬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임 회장에 南善顯동문을

추대했다. 南회장은 동문간 친목도모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단합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찬을 갖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한편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李準雄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점'을 주제로 동문들과 문답을 주고받았으며 李珍魯교수는 동창회가 주관하는 커뮤니케이션 무상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金貳煥前회장은 동문들을 위해 세미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뜻을 밝혔다.



柳鍾秀·金璋煥동문, 金貳煥 前회장, 南善顯회장, 李珍魯·李準雄동문



앞줄 柳判童·李文漢·金建浩동문, 뒷줄 丁成大·姜華淳·崔準杓·康景宣·金太奂동문

수의대동창회

총회 일정 등 회무 논의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1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에서 李文漢회장을 비롯해 金建浩수석부회장, 姜華淳·丁成大부회장, 崔準杓사무총장, 康景宣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모교 수의대 柳判童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 2013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일정과 진행 방안, 임원진 선정,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주소록 정리 및 광고비 접수 등 올해 회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동창회는 오는 6월 '수의과대학 후원의 밤', 10월 6일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SPARC동창회

金鍾顯회장 선출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淳伯)는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鄭淳伯회장을 비롯해 安相元·河相哲·朴煥熙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쉼 金鍾顯(19기)대표를 선출했다.

제7대 회장에 취임한 金鍾顯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간에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창회가 앞으로 동문간 상호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鄭淳伯 前회장·金鍾顯회장

했다.

한편 이날 任稅現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공로패·감사패 수여식에서 安相元(5기)·鄭淳伯(17기)·丁澈(17기)동문에게 공로패, 安相元(5기)·金志炫(13기)·박진호(16기)·丁澈(17기)·利用一(19기)·朴燦浩(19기)·강경해(20기)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定)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金榮珠 作



기쁨, 아크릴릭, 72×58.5cm, 1980

<작가약력>

- ▲1970 모교 회화와 졸업
- ▲1973 미국 크랜브룩 미술대학원 졸업
- ▲1973 크랜브룩 미술대학원 경매전 입상
- ▲1978 중앙 미술대상전 특선

- ▲1980 프랑스 살롱 아트 씨크레전 초대
- ▲1981 모나코왕실 주최 국제현대미술전 입상
- ▲1982 하버드 대학원 초청 아시아 우수 기독작가전 초대
- ▲미국·프랑스·한국 등 개인전 16회
- ▲현대성글로벌네트워 부회장



趙政男·金炳道·金基文·孫京植·鄭八道·張昌炫·金鍾燮·金光石·孫炳斗동문

동문 3명에 AMP대상 시상

AMP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2회 AMP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鍾燮회장을 비롯해 CJ그룹 孫京植(법학57-61·23기)회장, SK텔레콤 趙政男(화학공학61-67·45기)前고문, 모교 경영대 金炳道(경영78-82)학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鍾燮회장은 인사말에서 "AMP



金仁圭·李炯均·孫一根·安秉勳·林光洙·姜天錫·鄭鎮星·裴仁俊·任廷基·文昌克등문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조선일보 姜天錫주필

관악언론인회 총회서 裴仁俊회장 연임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S 정다은(언론정보03-08)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裴仁俊회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전해 주신 총동창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 관악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관악회는 언론의 길을 동행하는 동문들 소통의 장으로써 학연의 결속이나 연고주의의 추구에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더불어 확인하고 가치의 공감대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관악언론인들의 언론가치 창출을 위한 소통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 요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조선일보 姜天錫주필은 지난 38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기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언론계 안팎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특히 조선일보에 게재되는 ‘姜天錫칼럼’은 姜동문의 빼어난 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코너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항로표식이 돼주고



裴仁俊회장(右)이 姜天錫동문에게 상패 수여

있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외길 인생을 걸으며 거둔 큰 공적을 바탕으로 오늘 뜻 깊은 상을 수상하는데 대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2003년 4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모교의 발전과 수준 높은 언론문화 창달에 공헌해 온 관악언론인들의 존재는 장차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응비할 모교와 동창회에 있어서 갖은 세파를 이겨나가게 하는 든든한 창이자 방패와도 같다”며 “동문 언론인 여러분은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묵묵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선두자로 언론인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자리”라며 “姜天錫주필의 수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언론인 모두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또 “모교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일류대학 도약을 위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둘째 해로써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의 비전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문 여러분들이 모교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조선일보 姜天錫(사회69-76)주필이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姜天錫동문은 1975년 조선일보 수습 14기 기자로 언론계에 들어와 편집국장, 논설위원,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을 거쳐 2006년 6월부터 조선일보 주필로 재직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정론직필로 제시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강전석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姜天錫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제정신의 뼈와 살을 영글게 해주고

裴仁俊회장 인사말 <요지>

관악회는 언론의 길을 동행하는 동문들이 세상을 향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고 자극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권위나 희소성에서 다른 상들과 많이 다르고 믿습니다. 수상자는 동문 언론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기와 희망을 전파할 것입니다.

언론의 길을 동행하는 동문들의 소통, 그 의미는 학연의 결속이나 연고주의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더불어 확인하고 가치의 공감대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것도 언론 역할의식의 발로입니다. 법인 서울대의 제도 안착과 개혁과 약진은 서울대인만의 바람이 아니며, 대한민국 교육입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교는 세계에서 통할 인재의 육성, 인재 입국의 선도역을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모교가 이를 위해 도전하고 변화하며 성취하도록 동문 언론인들이 보도와 논평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학연을 넘어선 언론 역할의 한 부분입니다.

관악회가 총동창회의 장학활동을 응원하는 것도 인재 육성의 절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악언론인들의 언론가치 창출을 위한 소통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姜天錫동문 수상 소감 <요지>

불편을 놓는 날 40년 근속 감사패나 받아볼까 하는 욕심을 품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 나이에 난데없이 수상대에 서리라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 정신의 뼈와 살을 영글게 해준 곳, 더더욱 우리 두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던 모교 동문들이 주는 상을 받게 돼 감개가 깊습니다.

저는 1975년 기자로 첫발을 뒀습니다. 언론계의 같은 ‘75년생’으로 한때 영등포경찰서 주변 일대를 호령하던 金仁圭 前KBS 사장, 文昌克 前중앙일보 주필 등 그때의 새끼 호랑이들이 희끗희끗한 머리를 이고, 그러나 아직 팽팽한 얼굴로 저기 어느 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언론계의 75년생’도 이제 현업에는 몇 남지 않았습니

다. 그런 세월이 밀려 저 역시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보다 살아있는 화석, 또는 고고학적 유물로서의 희소가치를 더 쳐주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서둘러 구워낸 조금한 자기 확신들이 전속력으로 충돌해 사회적 소통의 입지를 갈수록 좁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이런 시대를 그나마 별 탈 없이 건너고 있는 건 성급한 확신 대신에 당연한 듯이 보이는 모든 사태의 근거에 의문을 던지는 적극적 懷疑主義를 배웠던 그 시절 모교 분위기 덕분입니다.

기자 생활 38년 동안 많이 부대끼고 여러 번 비틀거렸지만 아주 넘 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만났던 모교 동문들이 주는 상을 받게 돼 감개가 깊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이날 언론인 대상 시상식이 끝난 뒤 李炯均(정치59-64)임시의장

의 사회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裴仁俊회장을 비롯한 徐玉植(동양사학69-73)·李秉植(영어교육72-76)감사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香)

춘천지부동창회

안동 ‘인문학 기행’ 다녀와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2월 17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문화유산답사 ‘인문학 기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林正根(의학70-76)회장을 비롯해 李柱弘(외교88-93)사무국장, 朴升漢(지리교육53-57)·南相憲(수의학69-73)·邊知亮(정치78-83)·鄭泰洙(농업교육81-89)·洪允基(중문88-94)동문과 지역 내 한학자인 김정기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퇴계묘, 퇴계종택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회장은 “이번 기행은 한국유교, 특히 퇴溪 李 滉의 유교유산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안동지역의 답사를 통해 유교문화의 뿌리를 더듬어보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신입생 등에 장학금 수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18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만두레에서 ‘2013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동문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모교에 입학하는 대전·충남 출신의 신입생 및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회회장은 이날 김은서(우송고)양, 백아름(지족고)양, 성경현(청양고)군, 유정환(대전여고)양, 이승철(보문고)군, 최정택(충남고)군과 성적우수자 6명 등 총 12명에게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항지부동창회

새 회장에 黃基錫동문

포항지부동창회(회장 裴龍在)는 지난 1월 30일 포항시 UA컨벤션 4층에서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모임을 열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늘솔조경 黃基錫(원예76-85)대표를 선출했으며, 총무에 관문동물병원 權泰錫(수의학86-90)원장을 선임했다.

한편 2월 5일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요산재에서 黃基錫회장, 李鍾漢(화학62-69)동문, 權泰錫총무 등이 모교 신입생 10명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美)



신송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짭맛을 줄여
더욱 건강합니다.



짭맛을 줄인 순살 태양초 고추장

염도를 17% 이상 줄이고
칼칼함은 살린 고추장
업계 최저 염도, HACCP인증
합성보존료 무첨가



신송 라이트 햄

짭맛은 줄이고
국산 과일로 숙성시켜
담백함은 살린 라이트 햄
100% 국산 냉장돈육 사용



저염 양조 간장

일반 간장 대비 염도는 25% 이상 낮추고
감칠맛은 살린 저염양조간장
업계 최저 염도 - 염도 11%
100% 양조간장
합성보존료 무첨가



참기름으로 두 번 구워 고소하고 향긋한 재래김

염도는 낮추고 참기름으로 두 번 구워
고소함과 향긋함은 살린 재래김
HACCP인증

화제의 동문

문화유산해설사 崔賀敬동문



“미국, 영국, 인도 등지에서 생활하며 습득한 영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외국인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등 재능기부도 할 겸 문화유산해설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어느덧 古稀에 가까운 나이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내가 아는 문화유산 지식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내일이 자꾸만 기다려집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창덕궁은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곳에서 격주 금요일마다 자원봉사로 입장객들에게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崔賀敬(독어교육64-68)동문을 만나 현대그룹 CEO에서 문화유산해설사로 ‘인생 2막’을 열게 된 배경과 활동상을 들었다.

4년째 창덕궁서 무보수 봉사

崔동문은 “한국 궁궐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는 창덕궁은 다양한 정자, 연못, 수목, 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 퍼뜨릴 법인 출범시켜
현대그룹 CEO 출신...황혼 잇은 ‘궁궐지킴이’

랫동안 임금들이 거쳐했던 곳”이라고 말문을 연 뒤 “해외 근무 시절엔 주말이 없었을 정도로 바쁜 관계로 외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설사가 된 배경을 소개했다.

퇴임 몇 해 전부터 인생 2막과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 崔동문은 우연히 국립민속박물관과 국

립민속박물관회가 운영하는 1년 과정의 민속박물관대학 모집 공고를 보고 연속 3년 교육을 받으며 틈틈이 동기생들과 문화유산 탐방을 다니는 등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 것’ 알려

이어 2006년 4개월 과정의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심화 교육과정까지 수료하고 2010년에 한국의 재발견에서 운영하는 ‘궁궐지킴이(12기)’ 교육을 받아 문화유산해설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경복궁, 종묘 등을 돌며 근무한 그는 현재는 ‘창덕궁’에서 4년째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닌 그는 개인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미국 테일러대 교수와 학생 등의 부탁을 받아 창덕궁과 경복궁 등 우리 문화유산을 영어로 해설하는 봉사활동도 다닌다.

崔동문이 회장직을 맡은 친목단체 수

준이던 한국전통문화진흥원이 사단법인으로 이번 달에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진흥원은 앞으로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崔동문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교포 자녀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 멘토 수료생들과 한국전통문화진흥원 멤버들 가운데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이들과 함께 앞으로 국격에 맞는 해설을 제공하고, ‘우리 것’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우리 전통을 그저 지키고 보존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황혼을 태우고 있는 崔동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崔동문은 광주제일고와 모교 사대 졸업 후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5년 현대중공업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독일 함부르크 지사장, 현대상선 미주 현지법인 대표, 현대전자 부사장, 현대상선 전무, 현대택배 사장, 현대통신 사장, 한원마이크로웨이브 회장, 세인 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定〉

서울시립교향악단 朴炫貞대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법인으로 출범한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아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서울시향은 아시아 오케스트라로서 최초로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그라모폰(DG)과 장기 계약을 체결, 세계 시장에 4장의 음반을 내고, 2011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니,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뉴욕 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단체들과 콘서트시업을 이뤄 세계적인 작곡가들에게 신작을 위촉해 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향은 세계적인 교향악단과 함께 현대음악 발전에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세 번째 대표로 朴炫貞(교육80-84)동문을 선임했다.

직원 역량 강화·경영체계 정비

모교 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사회학 석·박사를 마친 후 귀국한 朴炫貞대표는 17년간 삼성화재에서 일하며 손해보험 업계 여성 최초 임원을 지냈다.

1993년 신경영으로 국내에서 처음 여성 대졸자를 대규모로 공채한 삼성은 수백, 수천 명씩 입사한 여성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없어 난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삼성그룹 인력개발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朴대표는 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여성과 남성의

삶과 조직에서의 행동, 일에 대한 남녀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한껏 키울 수 있었던 朴대표는 퇴직 후 2011년 가을 ‘여성리더십연구원’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대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에 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연구를 수행했다.

朴대표는 “20년 전 그다지 내키지 않으면서도 업무라서 하는 수 없이 했던 일이 도리어 지금은 제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약 3주 지났는데요, 음식 먹을 줄만 아는 사람이 식당 사장된 기분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정말 크고, 또 문

화계 쪽은 제가 살아왔던 세상과 많이 다르더군요. 특히 일하는 방식, 목표에 대한 생각, 비용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평가 등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발견한 동시에 문화계의 경우 다소 내부지향적인 성향이 있어 세상과 많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상품으로

서울시향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뛰어난 음악성을 뒷받침할 경영 인프라 확충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주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기틀 마련에 최선
삼성 임원·여성리더십연구원 대표 등 지내

소를 알게 된 朴대표는 공공기관에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朴대표는 “10년 후 시향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었을 때 기틀이 잡혔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임기 3년간 전반적인 경영체계를 정비해 놓겠다”며 이에 “오케스트라의 음악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향시설과 경제적 효율 등을 감안할 때 2천~2천5백석 규모가 적당하다고 하나, 세종문화회관은 3천석의 다목적홀로 설계돼 서울 시내에서 사실상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하나뿐이다. 때문에 서울시향의 티켓 유료 판매율이 92%에 달하며, 인기 프로그램은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이미 1년에 한 달 가까이 예술의 전당을 쓰고 있어 대관 기간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朴대표는 “해외 유명 연주자의 경우 2~3년 전에 스케줄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관 날짜를 미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아 질 높은 공연기획에 애로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관객의 접근성과 비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잘되길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을 이야기하지만, 러시아의 불소이 발레, 베를린 필, 비엔나 필처럼 서울의 문화상품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있느냐는 의문에 그녀는 “각 나라 혹은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는 그 사회 문화적 역량이 집결된 총체적인 결과물”이라며 “‘아르스노바’와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향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키우는데 일조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향은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80여 회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고, 소외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기 교육프로그램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美〉

화제의 동문



NEVER STOP EXPLORING™

이제부터는 기계로는 갈 수 없는 길

정적을 깨뜨리는
엔진소리도 빌딩숲도 없습니다
기계가 아닌 오직 인간의 힘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산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스스로가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노스페이스는
더 큰 힘을 갖게 해줍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다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We only think cars
쌍용자동차



또 하나의 코란도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4WD로 어떤 길에서도 든든하고, 체어맨W와 동일한 리어 서스펜션과 고급차에 적용되는 후륜구동으로 승차감이 편안한 코란도 투리스모! 당신의 레저생활에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것입니다



Premium MLV (Multi Leisure Vehicle)

코란도 투리스모와 함께 인생을 레저모드로 바꿔라!



투리스모는 SUV다!

동급유일 4WD 시스템 / 서브프레임 / 한국형 LET 디젤엔진 / 스포티한 SUV LOOK



투리스모는 Sedan이다!

체어맨W와 동일한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 / 후륜구동 / 스마트키 시스템



투리스모는 MPV다!

공간이 넉넉한 11인승 /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 / 자유로운 Seat Variation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 (6인 이상 탑승시)



연간자동차세 65,000원

* 동급최장 품질보증서비스: 5년 10만km (엔진&구동)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500-5582

www.ssmotor.com



명품자동차는 현대, 기아, 쌍용,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된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속도로 단속을 저지 가능합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전반적인 차량의 특성이 반영되어

코란도 투리스모 LT, GT, RT • 4WD 1,980cc, 2,700cc, 2,000cc, 2,400cc, 2,800cc, 3,000cc, 3,500cc, 4,000cc, 4,500cc, 5,000cc, 5,500cc, 6,000cc, 6,500cc, 7,000cc, 7,500cc, 8,000cc, 8,500cc, 9,000cc, 9,500cc, 10,000cc, 10,500cc, 11,000cc, 11,500cc, 12,000cc, 12,500cc, 13,000cc, 13,500cc, 14,000cc, 14,500cc, 15,000cc, 15,500cc, 16,000cc, 16,500cc, 17,000cc, 17,500cc, 18,000cc, 18,500cc, 19,000cc, 19,500cc, 20,000cc, 20,500cc, 21,000cc, 21,500cc, 22,000cc, 22,500cc, 23,000cc, 23,500cc, 24,000cc, 24,500cc, 25,000cc, 25,500cc, 26,000cc, 26,500cc, 27,000cc, 27,500cc, 28,000cc, 28,500cc, 29,000cc, 29,500cc, 30,000cc, 30,500cc, 31,000cc, 31,500cc, 32,000cc, 32,500cc, 33,000cc, 33,500cc, 34,000cc, 34,500cc, 35,000cc, 35,500cc, 36,000cc, 36,500cc, 37,000cc, 37,500cc, 38,000cc, 38,500cc, 39,000cc, 39,500cc, 40,000cc, 40,500cc, 41,000cc, 41,500cc, 42,000cc, 42,500cc, 43,000cc, 43,500cc, 44,000cc, 44,500cc, 45,000cc, 45,500cc, 46,000cc, 46,500cc, 47,000cc, 47,500cc, 48,000cc, 48,500cc, 49,000cc, 49,500cc, 50,000cc, 50,500cc, 51,000cc, 51,500cc, 52,000cc, 52,500cc, 53,000cc, 53,500cc, 54,000cc, 54,500cc, 55,000cc, 55,500cc, 56,000cc, 56,500cc, 57,000cc, 57,500cc, 58,000cc, 58,500cc, 59,000cc, 59,500cc, 60,000cc, 60,500cc, 61,000cc, 61,500cc, 62,000cc, 62,500cc, 63,000cc, 63,500cc, 64,000cc, 64,500cc, 65,000cc, 65,500cc, 66,000cc, 66,500cc, 67,000cc, 67,500cc, 68,000cc, 68,500cc, 69,000cc, 69,500cc, 70,000cc, 70,500cc, 71,000cc, 71,500cc, 72,000cc, 72,500cc, 73,000cc, 73,500cc, 74,000cc, 74,500cc, 75,000cc, 75,500cc, 76,000cc, 76,500cc, 77,000cc, 77,500cc, 78,000cc, 78,500cc, 79,000cc, 79,500cc, 80,000cc, 80,500cc, 81,000cc, 81,500cc, 82,000cc, 82,500cc, 83,000cc, 83,500cc, 84,000cc, 84,500cc, 85,000cc, 85,500cc, 86,000cc, 86,500cc, 87,000cc, 87,500cc, 88,000cc, 88,500cc, 89,000cc, 89,500cc, 90,000cc, 90,500cc, 91,000cc, 91,500cc, 92,000cc, 92,500cc, 93,000cc, 93,500cc, 94,000cc, 94,500cc, 95,000cc, 95,500cc, 96,000cc, 96,500cc, 97,000cc, 97,500cc, 98,000cc, 98,500cc, 99,000cc, 99,500cc, 100,000cc, 100,500cc, 101,000cc, 101,500cc, 102,000cc, 102,500cc, 103,000cc, 103,500cc, 104,000cc, 104,500cc, 105,000cc, 105,500cc, 106,000cc, 106,500cc, 107,000cc, 107,500cc, 108,000cc, 108,500cc, 109,000cc, 109,500cc, 110,000cc, 110,500cc, 111,000cc, 111,500cc, 112,000cc, 112,500cc, 113,000cc, 113,500cc, 114,000cc, 114,500cc, 115,000cc, 115,500cc, 116,000cc, 116,500cc, 117,000cc, 117,500cc, 118,000cc, 118,500cc, 119,000cc, 119,500cc, 120,000cc, 120,500cc, 121,000cc, 121,500cc, 122,000cc, 122,500cc, 123,000cc, 123,500cc, 124,000cc, 124,500cc, 125,000cc, 125,500cc, 126,000cc, 126,500cc, 127,000cc, 127,500cc, 128,000cc, 128,500cc, 129,000cc, 129,500cc, 130,000cc, 130,500cc, 131,000cc, 131,500cc, 132,000cc, 132,500cc, 133,000cc, 133,500cc, 134,000cc, 134,500cc, 135,000cc, 135,500cc, 136,000cc, 136,500cc, 137,000cc, 137,500cc, 138,000cc, 138,500cc, 139,000cc, 139,500cc, 140,000cc, 140,500cc, 141,000cc, 141,500cc, 142,000cc, 142,500cc, 143,000cc, 143,500cc, 144,000cc, 144,500cc, 145,000cc, 145,500cc, 146,000cc, 146,500cc, 147,000cc, 147,500cc, 148,000cc, 148,500cc, 149,000cc, 149,500cc, 150,000cc, 150,500cc, 151,000cc, 151,500cc, 152,000cc, 152,500cc, 153,000cc, 153,500cc, 154,000cc, 154,500cc, 155,000cc, 155,500cc, 156,000cc, 156,500cc, 157,000cc, 157,500cc, 158,000cc, 158,500cc, 159,000cc, 159,500cc, 160,000cc, 160,500cc, 161,000cc, 161,500cc, 162,000cc, 162,500cc, 163,000cc, 163,500cc, 164,000cc, 164,500cc, 165,000cc, 165,500cc, 166,000cc, 166,500cc, 167,000cc, 167,500cc, 168,000cc, 168,500cc, 169,000cc, 169,500cc, 170,000cc, 170,500cc, 171,000cc, 171,500cc, 172,000cc, 172,500cc, 173,000cc, 173,500cc, 174,000cc, 174,500cc, 175,000cc, 175,500cc, 176,000cc, 176,500cc, 177,000cc, 177,500cc, 178,000cc, 178,500cc, 179,000cc, 179,500cc, 180,000cc, 180,500cc, 181,000cc, 181,500cc, 182,000cc, 182,500cc, 183,000cc, 183,500cc, 184,000cc, 184,500cc, 185,000cc, 185,500cc, 186,000cc, 186,500cc, 187,000cc, 187,500cc, 188,000cc, 188,500cc, 189,000cc, 189,500cc, 190,000cc, 190,500cc, 191,000cc, 191,500cc, 192,000cc, 192,500cc, 193,000cc, 193,500cc, 194,000cc, 194,500cc, 195,000cc, 195,500cc, 196,000cc, 196,500cc, 197,000cc, 197,500cc, 198,000cc, 198,500cc, 199,000cc, 199,500cc, 200,000cc, 200,500cc, 201,000cc, 201,500cc, 202,000cc, 202,500cc, 203,000cc, 203,500cc, 204,000cc, 204,500cc, 205,000cc, 205,500cc, 206,000cc, 206,500cc, 207,000cc, 207,500cc, 208,000cc, 208,500cc, 209,000cc, 209,500cc, 210,000cc, 210,500cc, 211,000cc, 211,500cc, 212,000cc, 212,500cc, 213,000cc, 213,500cc, 214,000cc, 214,500cc, 215,000cc, 215,500cc, 216,000cc, 216,500cc, 217,000cc, 217,500cc, 218,000cc, 218,500cc, 219,000cc, 219,500cc, 220,000cc, 220,500cc, 221,000cc, 221,500cc, 222,000cc, 222,500cc, 223,000cc, 223,500cc, 224,000cc, 224,500cc, 225,000cc, 225,500cc, 226,000cc, 226,500cc, 227,000cc, 227,500cc, 228,000cc, 228,500cc, 229,000cc, 229,500cc, 230,000cc, 230,500cc, 231,000cc, 231,500cc, 232,000cc, 232,500cc, 233,000cc, 233,500cc, 234,000cc, 234,500cc, 235,000cc, 235,500cc, 236,000cc, 236,500cc, 237,000cc, 237,500cc, 238,000cc, 238,500cc, 239,000cc, 239,500cc, 240,000cc, 240,500cc, 241,000cc, 241,500cc, 242,000cc, 242,500cc, 243,000cc, 243,500cc, 244,000cc, 244,500cc, 245,000cc, 245,500cc, 246,000cc, 246,500cc, 247,000cc, 247,500cc, 248,000cc, 248,500cc, 249,000cc, 249,500cc, 250,000cc, 250,500cc, 251,000cc, 251,500cc, 252,000cc, 252,500cc, 253,000cc, 253,500cc, 254,000cc, 254,500cc, 255,000cc, 255,500cc, 256,000cc, 256,500cc, 257,000cc, 257,500cc, 258,000cc, 258,500cc, 259,000cc, 259,500cc, 260,000cc, 260,500cc, 261,000cc, 261,500cc, 262,000cc, 262,500cc, 263,000cc, 263,500cc, 264,000cc, 264,500cc, 265,000cc, 265,500cc, 266,000cc, 266,500cc, 267,000cc, 267,500cc, 268,000cc, 268,500cc, 269,000cc, 269,500cc, 270,000cc, 270,500cc, 271,000cc, 271,500cc, 272,000cc, 272,500cc, 273,000cc, 273,500cc, 274,000cc, 274,500cc, 275,000cc, 275,500cc, 276,000cc, 276,500cc, 277,000cc, 277,500cc, 278,000cc, 278,500cc, 279,000cc, 279,500cc, 280,000cc, 280,500cc, 281,000cc, 281,500cc, 282,000cc, 282,500cc, 283,000cc, 283,500cc, 284,000cc, 284,500cc, 285,000cc, 285,500cc, 286,000cc, 286,500cc, 287,000cc, 287,500cc, 288,000cc, 288,500cc, 289,000cc, 289,500cc, 290,000cc, 290,500cc, 291,000cc, 291,500cc, 292,000cc, 292,500cc, 293,000cc, 293,500cc, 294,000cc, 294,500cc, 295,000cc, 295,500cc, 296,000cc, 296,500cc, 297,000cc, 297,500cc, 298,000cc, 298,500cc, 299,000cc, 299,500cc, 300,000cc, 300,500cc, 301,000cc, 301,500cc, 302,000cc, 302,500cc, 303,000cc, 303,500cc, 304,000cc, 304,500cc, 305,000cc, 305,500cc, 306,000cc, 306,500cc, 307,000cc, 307,500cc, 308,000cc, 308,500cc, 309,000cc, 309,500cc, 310,000cc, 310,500cc, 311,000cc, 311,500cc, 312,000cc, 312,500cc, 313,000cc, 313,500cc, 314,000cc, 314,500cc, 315,000cc, 315,500cc, 316,000cc, 316,500cc, 317,000cc, 317,500cc, 318,000cc, 318,500cc, 319,000cc, 319,500cc, 320,000cc, 320,500cc, 321,000cc, 321,500cc, 322,000cc, 322,500cc, 323,000cc, 323,500cc, 324,000cc, 324,500cc, 325,000cc, 325,500cc, 326,000cc, 326,500cc, 327,000cc, 327,500cc, 328,000cc, 328,500cc, 329,000cc, 329,500cc, 330,000cc, 330,500cc, 331,000cc, 331,500cc, 332,000cc, 332,500cc, 333,000cc, 333,500cc, 334,000cc, 334,500cc, 335,000cc, 335,500cc, 336,000cc, 336,500cc, 337,000cc, 337,500cc, 338,000cc, 338,500cc, 339,000cc, 339,500cc, 340,000cc, 340,500cc, 341,000cc, 341,500cc, 342,000cc, 342,500cc, 343,000cc, 343,500cc, 344,000cc, 344,500cc, 345,000cc, 345,500cc, 346,000cc, 346,500cc, 347,000cc, 347,500cc, 348,000cc, 348,500cc, 349,000cc, 349,500cc, 350,000cc, 350,500cc, 351,000cc, 351,500cc, 352,000cc, 352,500cc, 353,000cc, 353,500cc, 354,000cc, 354,500cc, 355,000cc, 355,500cc, 356,000cc, 356,500cc, 357,000cc, 357,500cc, 358,000cc, 358,500cc, 359,000cc, 359,500cc, 360,000cc, 360,500cc, 361,000cc, 361,500cc, 362,000cc, 362,500cc, 363,000cc, 363,500cc, 364,000cc, 364,500cc, 365,000cc, 365,500cc, 366,000cc, 366,500cc, 367,000cc, 367,500cc, 368,000cc, 368,500cc, 369,000cc, 369,500cc, 370,000cc, 370,500cc, 371,000cc, 371,500cc, 372,000cc, 372,500cc, 373,000cc, 373,500cc, 374,000cc, 374,500cc, 375,000cc, 375,500cc, 376,000cc, 376,500cc, 377,000cc, 377,500cc, 378,000cc, 378,500cc, 379,000cc, 379,500cc, 380,000cc, 380,500cc, 381,000cc, 381,500cc, 382,000cc, 382,500cc, 383,000cc, 383,500cc, 384,000cc, 384,500cc, 385,000cc, 385,500cc, 386,000cc, 386,500cc, 387,000cc, 387,500cc, 388,000cc, 388,500cc, 389,000cc, 389,500cc, 390,000cc, 390,500cc, 391,000cc, 391,500cc, 392,000cc, 392,500cc, 393,000cc, 393,500cc, 394,000cc, 394,500cc, 395,000cc, 395,500cc, 396,000cc, 396,500cc, 397,000cc, 397,500cc, 398,000cc, 398,500cc, 399,000cc, 399,500cc, 400,000cc, 400,500cc, 401,000cc, 401,500cc, 402,000cc, 402,500cc, 403,000cc, 403,500cc, 404,000cc, 404,500cc, 405,000cc, 405,500cc, 406,000cc, 406,500cc, 407,000cc, 407,500cc, 408,000cc, 408,500cc, 409,000cc, 409,500cc, 410,000cc, 410,500cc, 411,000cc, 411,500cc, 412,000cc, 412,500cc, 413,000cc, 413,500cc, 414,000cc, 414,500cc, 415,000cc, 415,500cc, 416,000cc, 416,500cc, 417,000cc, 417,500cc, 418,000cc, 418,500cc, 419,000cc, 419,500cc, 420,000cc, 420,500cc, 421,000cc, 421,500cc, 422,000cc, 422,500cc, 423,000cc, 423,500cc, 424,000cc, 424,500cc, 425,000cc, 425,500cc, 426,000cc, 426,500cc, 427,000cc, 427,500cc, 428,000cc, 428,500cc, 429,000cc, 429,500cc, 430,000cc, 430,500cc, 431,000cc, 431,500cc, 432,000cc, 432,500cc, 433,000cc, 433,500cc, 434,000cc, 434,500cc, 435,000cc, 435,500cc, 436,000cc, 436,500cc, 437,000cc, 437,500cc, 438,000cc, 438,500cc, 439,000cc, 439,500cc, 440,000cc, 440,500cc, 441,000cc, 441,500cc, 442,000cc, 442,500cc, 443,000cc, 443,500cc, 444,000cc, 444,500cc, 445,000cc, 445,500cc, 446,000cc, 446,500cc, 447,000cc, 447,500cc, 448,000cc, 448,500cc, 449,000cc, 449,500cc, 450,000cc, 450,500cc, 451,000cc, 451,500cc, 452,000cc, 452,500cc, 453,000cc, 453,500cc, 454,000cc, 454,500cc, 455,000cc, 455,500cc, 456,000cc, 456,500cc, 457,000cc, 457,500cc, 458,000cc, 458,500cc, 459,000cc, 459,500cc, 460,000cc, 460,500cc, 461,000cc, 461,500cc, 462,000cc, 462,500cc, 463,000cc, 463,500cc, 464,000cc, 464,500cc, 465,000cc, 465,500cc, 466,000cc, 466,500cc, 467,000cc, 467,500cc, 468,000cc, 468,500cc, 469,000cc, 469,500cc, 470,000cc, 470,500cc, 471,000cc, 471,500cc, 472,000cc, 472,500cc, 473,000cc, 473,500cc, 474,000cc, 474,500cc, 475,000cc, 475,500cc, 476,000cc, 476,500cc, 477,000cc, 477,500cc, 478,000cc, 478,500cc, 479,000cc, 479,500cc, 480,000cc, 480,500cc, 481,000cc, 481,500cc, 482,000cc, 482,500cc, 483,000cc, 483,500cc, 484,000cc, 484,500cc, 485,000cc, 485,500cc, 486,000cc, 486,500cc, 487,000cc, 487,500cc, 488,000cc, 488,500cc, 489,000cc, 489,500cc, 490,000cc, 490,500cc, 491,000cc, 491,500cc, 492,000cc, 492,500cc, 493,000cc, 493,500cc, 494,000cc, 494,500cc, 495,000cc, 495,500cc, 496,000cc, 496,500cc, 497,000cc, 497,500cc, 498,000cc, 498,500cc, 499,000cc, 499,500cc, 500,000cc, 500,500cc, 501,000cc, 501,500cc, 502,000cc, 502,500cc, 503,000cc, 503,500cc, 504,000cc, 504,500cc, 505,000cc, 505,500cc, 506,000cc, 506,500cc, 507,000cc, 507,500cc, 508,000cc, 508,500cc, 509,000cc, 509,500cc, 510,000cc, 510,500cc, 511,000cc, 511,500cc, 512,000cc, 512,500cc, 513,000cc, 513,500cc, 514,000cc, 514,500cc, 515,000cc, 515,500cc, 516,000cc, 516,500cc, 517,000cc, 517,500cc, 518,000cc, 518,500cc, 519,000cc, 519,500cc, 520,000cc, 520,500cc, 521,000cc, 521,500cc, 522,000cc, 522,500cc, 523,000cc, 523,500cc, 524,000cc, 524,500cc, 525,000cc, 525,500cc, 526,000cc, 526,500cc, 527,000cc, 527,500cc, 528,000cc, 528,500cc, 529,000cc, 529,500cc, 530,000cc, 530,500cc, 531,000cc, 531,500cc, 532,000cc, 532,500cc, 533,000cc, 533,500cc, 534,000cc, 534,500cc, 535,000cc, 535,500cc, 536,000cc, 536,500cc, 537,000cc, 537,500cc, 538,000cc, 538,500cc, 539,000cc, 539,500cc, 540,000cc, 540,500cc, 541,000cc, 541,500cc, 542,000cc, 54

“과학기술 발전은 긴 호흡으로 정책 펴야”

동문을 찾아서 金道然 前국가과학기술위원장

2011년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에 취임한 金道然(재료공학70-74)동문이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金동문은 李明博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봉직했을 정도로 과학기술 행정의 달인이기도 하다. 朴槿惠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되는 국과위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金 前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인 차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먹거리 원천인 과학기술에 관심과 열정을 쏟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했다.



대답 : 尹在錫(CBS객원해설위원)논설위원

—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동창회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국가로 도약해 국가의 격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간의 봉직을 통해 얻은 성과와 보람에 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확히 1년 11개월이죠. 성과를 얘기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만, 독립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가 교과부와 통합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상황에서 국과위가 출범했죠.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2012년 16조, 2013년 17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30개 부처·청에 배분하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 과학기술 R&D예산 집행은 특히 아끼고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학기술 행정의 개방을 위해 애썼고 특히 21세기 새로운 시장과 지식을 창출하는 융합과학기술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국과위 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해 일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과위 출범 후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발족하셨는데, 성과는 어떠신지요.

“지구온난화, 도시화 등 지구환경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 재해가 잦고 피해가 대형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R&D는 미미하며, 그마저도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습니다. 국과위는 방재연구원 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제역, 사이버테러, 백두산 화산폭발 등에 대한 연구지원, 재난재해 R&D 5개년 투자전략(2013~2017) 마련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과학기술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연구하는 마인드를 체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 행정부처는 1967년 경제기획원에서 독립, 집행 기능이 빠진 처(處)로 출발해 DJ 정권 시절인 1998년 부로 승격됐고, 참여정부 들어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가 MB정부에선 교육인적자원부에 흡수돼 교육과학기술부로 축소되고 보완책으로

• 金 前위원장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4년 모교 공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KAIST에서 석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아주대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2008년까지 모교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료공학 분야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했다.

모교 재직 중 공대 학생담당 부학장, 재료 미세조직 창의연구단 단장, 공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李明博정

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지내는 등 과학기술 행정 분야에서도 맹활약했다. 또 울산대 총장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 및 공학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

적극적인 기고와 저술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을 대중에 전파하는데도 힘써 ‘우리시대 기술혁명’, ‘나는 신기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 ‘기후, 에너지 그리고 녹색이야기’,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국내 ‘과학기술혁신역량’ 질적 지표 취약

“이공계 출신 새 대통령에 기대감 커”

국과위가 신설됐습니다. 과학기술 행정부처가 정권에 따라 격상과 축소, 심지어 소멸되는 악순환을 해온 셈인데요.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 후 40년간 독립부처로 자리매김해 왔죠. 2008년 MB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했는데, 누구도 교육부가 없어졌다고는 말하지 않는 반면 많은 이가 과학기술부는 폐지됐다고 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MB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과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 후에도 과학기술 분야를 확대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변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거든요. 정부조직, 특히 과학기술 부처의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문화와 관습을 바꿔가며 능력을 더 높여야지, 조직을 자주 뜯고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 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습니다만, 담당 업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리 낙관적이지 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 IT 위주, 당장의 먹거리 산업의

정책 위주로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관련해 꼭 행길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해 주신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한 개 부처가, 그리고 한 사람의 장관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절대 필수 요건이지만, 이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등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과학기술 발전은 국내총생산(GDP)처럼 계량화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설된 미래부에 주문한다면 5년 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 MB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5년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연평균 R&D 증가율이 23%인데, 우리나라가 9.5%로 2위를 차지했어요. 민간과 정부를 합한 GDP 대비 R&D 투자액도

우리가 이스라엘(4.3%)에 이어 2위(4%)입니다. 특히 다행인 건 산업체가 리드하는 제조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고, 뿌리에 해당하는 기초과학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지난해 기초과학연구원이 발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진전이죠. 이제 바야흐로 든든한 기초 과학 위에 기술이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죠.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9위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표별로 보면 아직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등 질적 지표들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질적 지표 취약과 관련해선 국내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모교로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여전합니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지방의대까지 다 지원한 후에야 모교 공대를 지원하는 슬픈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교 공대 학장도 지내셨는데, 현재 공대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엘리트 엔지니어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죠. 문제의 핵심은 이공계 기피가 아닌 이공계 우수인력의 부족입니다. 사실 다른 분야가 확실한 블루오션이 아닌 데도 그쪽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우수 인력이 공대로 잘 오지 않는 건 먼 훗날을 생각하면 개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단견이고 불행이죠. 국가 차원에서, 또 대학 차원에서 공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도전 의식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안 될 것이 바로 인문학 등의 폭넓은 인성 교육입니다. 저는 국과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맑은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 모교도 마찬가지지만 KAIST나 포스텍, 그리고 KIST 등에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이 이공계 분야에서 좋은 유학대상국인 셈인데, 외국 고급 인력을 포용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생과 부대끼며 실험·토론 하고 싶어”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외국 인력을 불러다가 우리하고 같이 일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발전을 통해 상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속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외국 인력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발전을 꺾어놓겠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좋은 인력이 우리 사회에 와서 일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정상급은 아니거든요. 고급 인력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공계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학 기술계가 다시 한 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도 “과학 중심의 창조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새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체득한 지도자라는 점과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보다 큰 관심과 열정을 쏟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은 과학기술자들에게로 넘어 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과학기술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과학기술인이 국가에 무엇으로 봉사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 임기 중 전국의 연구소와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많이 방문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점은 오히려 너무 빠른 발전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바심이 나고 참을성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대간의 갈등, 전공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등 모두 거기서 기인하는 거죠. 과학기술 분야에도 배려하는 정신, 협력하는 정신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 과학기술의 발전을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산·학·연 협력 발전’이지요. 연구, 행정, 교육을 모두 경험하신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의 폐쇄성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과위의 주요 정책이 바로 산·학·연의 일체화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 모교는 최근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신설, 확충키로 했습니다. MIT, 스탠퍼드대 등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프로그램인데요. 이와 관련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총동창회가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시간대 총장을 지낸 제임스 듀더스택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의사가 오늘날의 외과병



동에 온다면 그는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교수가 오늘의 대학 강의실에 나타난다면 강의실, 연단, 칠판 학

생 등 모든 것이 익숙할 것이다. 대학교육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 강의의 온라인 공개는 2000년 MIT가 최초로 Open Course Ware를 출범시켜 지금은 하버드대, 예일대 등 우수 대학이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 대 면 강의를 해야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교에서 온라인 심리학 강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강의를 보겠습니까? 모교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니다. 울산대의 경우 강의를 듣는 사람이 3~4만명이 되며, 금년 봄에는 iTunes U에도 처음으로 올라가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가 온라인 강의 수강자에게 신탁으로 학점도 주고 학위수여도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요즘 화두죠. 인터넷 강의를 활성화하면, 특히 모교가 적극 나서면 반값 등록금 문제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BOX71사 참조〉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특별한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상대방의 장점은 높이 평가해 주고, 단점은 눈감아 주라(貴其所長 忘其所短)’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죠.”

— 위원장을 마치고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셨는지요.

“대학 32년, 정부에서 2년 반을 지냈으니 저는 천생 학교체질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온라인 강의,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

국과위서 ‘산·학·연 일체화’ 강조

최고급 강의 콘텐츠를 사회와 공유하는 나눔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합니다. 교수들 강의 수준도 자연히 높일 수 있고요. 세계 10대 대학을 지향하는 모교로서는 온라인 강의에서도 당연히 톱에 진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2009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강의 공개를 시도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아무리 교수님들을 독려해도 잘 안돼서 저까지 직접 나서서 겨우 다섯 강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학기에 20개 과목씩 진행해 3~4년 동안 1백개 이상의 과목이 올라와 있을

다면 젊은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부대끼며 생활하면서 토론도 하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모교 조정부 대표선수였지요. 그때 저축한 체력을 지금 빼 먹고 사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저축을 해야겠어요. 그래야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죠.”

— 동창회 및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동문 모두는 대한민국 각계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남의 그릇도 함께 채워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 그동안 연구하시라, 과학기술 행정 하시라 동창회에 좀 소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결국 모교 동문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니까요.” 〈사진= 차진재기자·정리= 林香默기자〉

金동문이 보는 온라인 강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공개는 시대적 대세다. 아이튠즈(iTunes)에 들어가 보면 현재 미국 MIT와 하버드대,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 5백여 곳에서 띄우는 동영상 강의만 10만건 가까이 된다. 최고 석학의 지식이 일부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세계 최선, 최고의 강의를 누구든지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정식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스탠퍼드대의 인공지능학과는 2011년 인공지능 입문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16만여 명이 수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MIT와 하버드대의 공조로 출범한 에드스(EdX) 프로그램은 1월부터 북잡회로 및 전자공학 과정을 매사추세츠주 내 전문대학 두 곳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리콘 벨리의 벤처기업인 유대시티(Udacity)는 1월부터 산호세주립대와 공조해 학점 이수를 전제로 대학 기본 과목의 입문 및 보충 과정을 시험적

으로 온라인에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수준의 대수학 과정, 대수학 보충 과정, 통계학 입문 과정이 그 것. 현재 이 과정엔 산호세주립대 학생 1백50명, 현지 전문대 및 고교생 1백50명 등 3백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3학점 당 1백50달러의 저렴한 수강료로 학점을 따게 된다. 소정의 과목을 모두 수강하면 졸업장도 딸 수 있다. 앞서서 저렴한 학비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듣고 학점도 딸 수 있는 시스템. 이를 모교가 앞장 서 확산시킨다면 반값 등록금의 딜레마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 오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문을 익히고 인격을 연마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고등교육을 완수한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졸업은 여러분이 익힌 지식과 지혜의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졸업식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을 통한 우리 공동체의 가치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경건한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경이로움과 희망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난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도전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근원입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대학과 대학인이 얼마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이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졸업생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체득한 인본적 가치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정직과 겸손을 최선의 덕목으로 삼고 넓은 시야를 갖추길 바랍니다.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잘 이루어나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노력해야 합니다. 편견을 떨쳐버리고 항상 포용하며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고 저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과 배려를 바탕으로 지금껏 축적한 역량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서울대인의 참된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졸업생 여러분의 꿈,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오늘 학위를 받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훌륭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에게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지난 수년간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나 학교 밖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이끌 동량으로서 인생의 큰 관문 하나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여러분의 당당한 자태와 당찬 눈빛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동북아 국제 정세의 혼돈, 장기적인 청년실업 대란 등은 이제 운명으로 맞닥뜨려야 할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가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극복한 결과”라고 말했듯이, 후배 여러분이 겪을 온갖 위험은 여러분의 더 큰 성장과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선택한 최고의 엘리트로서 어두운 밤에도 찬연한 빛을 발하는 야광주처럼,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를 선도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쳐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총동창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장자 모교를 세계 10위권 명문 대학으로 진입시키고 총동창회를 글로벌 엘리트 그룹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에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교 사랑과 동창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지는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울대인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국가와 민족 앞에 짊어진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동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안에 모교에 대한 금지가 살아 숨쉬는 한, 총동창회를 위시한 동문 사회는 늘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졸업식 … 이제 다시 제2의 출발이다

제67회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총 5천1백21명 배출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朴熙伯·孔大植부회장, 모교 權彞赫·李賢宰·趙奎圭·鮮于仲皓·李基俊·鄭雲燦 前총장과 吳然天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6백17명, 석사 1천9백39명, 학사 2천5백65명 등 총 5

천1백2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원동력은 대학과 대학인이 얼마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은 시대가 선택한 최고의 엘리트로서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를 선도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쳐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가와 민족 앞에 짊어진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동문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번 졸업생 답사는 2급 청각장애를 이겨내며 성실히 학업에 임

한 이재권(원자핵공학13졸)군이 대표로 연설했다.

李군은 “한때 장애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던 적도, 좌절 끝에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부터가 변화의 시작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 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정수희- 양우리 ▲사회대 : 이윤아- 박현민 ▲자연대 : 김예은- 김재영 ▲간호대 : 권보람- 오주는 ▲경영대 : 김민철- 권구현 ▲공대 : 류지훈- 성민제 ▲농생대 : 박상용- 최우리 ▲미대 : 고유진- 김예지 ▲법대 : 박정훈- 하정림 ▲사대 : 임성현- 이주연 ▲생활대 : 최유리- 강지은 ▲수의대 : 양지영- 황준규 ▲악대 : 노리브가(총동창회장상) ▲음대 : 박영선- 이현지 ▲의대 : 김민우- 김지은 ▲자유전공 : 정의진- 문기현 ▲치대원 : 박관수- 임선진 ▲의대원 : 도은진- 김한샘 ▲법전원 : 임미경- 장혜진 (美)

단과대학(원) 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 회원
인 문 대 학	201	11,766
사 회 과 학 대 학	317	15,836
자 연 과 학 대 학	231	11,680
간 호 대 학	67	3,640
경 영 대 학	150	7,518
공 과 대 학	602	45,491
농 업 생 명 대 학	216	21,769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57	5,591
법 과 대 학	171	17,014
사 범 대 학	206	26,826
상 과 대 학	—	6,723
생 활 과 학 대 학	69	4,436
수 의 과 대 학	45	2,411
약 학 대 학	18	6,368
음 악 대 학	104	7,958
의 과 대 학	87	11,725
치 과 대 학	—	6,049
자유전공학부	24	25
대 학 원	1,926	96,969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55	849
보 건 대 학 원	53	3,605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47	4,803
환 경 대 학 원	62	2,825
치의학대학원	88	436
의 학 대 학 원	61	61
융합과학대학원	27	99
경영전문대학원	87	666
법학전문대학원	150	274
소 계	5,121	335,270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801	24,112
총 계	5,922	372,720



칭화대 楊振寧교수 축사

학위수여식 식전행사에서는 195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중국 칭화대 楊振寧교수가 영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캠퍼스를 떠나는 졸업생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楊교수는 축사에서 중국의 전쟁 무렵인 70년전 물질적으로 매우 낙후된 서남연합대에서 공부했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많은 물질을 원하지 않았고, 금욕적인 것과 충분한 지적 자극과 민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시절 얻은 모든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며 1996년 뉴욕주립대에서 매우 운이 좋게 미국계 한국인 물리학자 벤자민 리를 만나 에너지물리학 분야에서 세계

적 수준의 연구를 함께 한 기억을 회고했다.

이어 楊교수는 “매우 현대적이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학구적 전통을 가진 저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자신보다 더 운이 좋다고 느낀다”면서 “활기차고 반영하는 한국의 역동적인 시기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교 기악과 金泳律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한 축하 공연에 이어 5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된 ‘SNU Faculty 합창단’은 ‘You raise me up’, 조용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를 축하로 선사하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기존 졸업식의 틀을 깨고 감동의 공연으로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입학식 ... 긴 안목으로 미래 준비하길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탐구해야”
본회서 신입생 전원에 도서 ‘良心’ 선물

모교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吳然天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孫一根·孔大植·洪性大부회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학부생 3천3백21명, 석·박사 3천5백68명 등 2013년 신입생은 6천8백8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호(의예과13입)군이 신입생을 대표해 “모교 학생으로서 금지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서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또 그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



조하는 곳”이라며 “자신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李秀滿(농공학71-78)회장이 축사를 했다.李회장은 ‘자부심’과 ‘도전’, ‘자기책임’,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신입생들에

게 도전정신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신입생들에게 큰 그림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꿈을 키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윤리교육과 秦教勳(철학56-60) 명예교수가 집필한 도서 ‘양심’을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美〉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은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대학생활은 청춘의 열정과 낭만, 그리고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강건한 심신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대학시절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긴 안목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설계하는 여러분 앞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제자로 맞이하고 싶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친구나 동료로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학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0여 년 동안 겨레와 민족의 대학으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서울대학교는 자신만의 이익과 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두루두루 살피고 보듬을 줄 아는 참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가지는 벅찬 자량과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자신이 추구할 미래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결합될 때 더욱 가치 있는 자부심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장에
韓敬九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에 자유전 공학부 韓敬九(인류74-78)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韓학부장은 모교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문화인류학회 교재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음악대학 학장에
金泳律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음악대학 학장에 기악과 金泳律(기악 76-80)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金학장은 1980년 모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에서 연주와 이론 석사학위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박사학위 및 전문연주자 자격증을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20여 차례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호른 독주자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대학 원장에
崔莫重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환경대학 원장에 환경계획학과 崔莫重(건축 79-83)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崔원장은 1983년 모교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와 하버드대에서 각각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수도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李秀滿동문 축사 〈요지〉

변화된 한국 대중문화의 힘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합해 일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와 인지도, 더 나아가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점점 더 좋게 상승시킨다면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국민, 모든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할 때 그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즐기세요. 그러면 성공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성취감이 따라올 것이고, 성공이라는 표현을 듣는 이 사회의 리더, 선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며 성취감의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리더인 여러분들도 보다 더 큰 그림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발전공로상 및 사회봉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제6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를 4월 12일까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다른 교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전임교원(또는 교원단체)을 발굴해 제3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이 뛰어나고, 봉사단을 조직 및 운영하거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남다른 열정을 보임으로써 학생들과 동료 교원들에게 봉사활동의 귀감이 될 만한 모교 전임교원 또는 교원단체를 4월 5일까지 전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교 기획처 대외협력팀(전화 : 880-9712, 팩스 880-5413)으로 후보 추천서, 추천사유, 공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權斗煥교수 등 46명 퇴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46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열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權斗煥(국문학)교수, 曹南鉉(국문학)교수, 任漢淳(독문학)교수, 金永植(동양사학)교수, 金南斗(철학)교수, 金世均(정치외교학)교수, 朴相燮(정치외교학)교수, 表鶴吉(경제학)교수, 朴明珍

(언론정보학)교수, 金熙濤(화학)교수, 任正彬(생명과학)교수, 李相珏(물리천문학)교수, 金廷九(물리천문학)교수, 朴永淑(간호학)교수, 崔明愛(간호학)교수, 閔相基(경영학)교수, 申孝澈(기계항공공학)교수, 李奎烈(조선해양공학)교수, 李起杓(조선해양공학)교수, 鄭聖進(산업공학)교수, 李吉成(건설환경공학)교수, 鄭泰鶴(건설환경공학)교수, 李銀哲(에너지시스템공학)교수, 任勝彬

(조경지역시스템공학)교수, 河鍾圭(농생명공학)교수, 章洙弘(디자인학)교수, 崔鍾庫(법학)교수, 禹漢鎔(국어교육)교수, Pierre Martinez(불어교육)교수, 李景植(역사교육)교수, 朴孝鍾(윤리교육)교수, 李愛珠(체육교육)교수, 李基榮(소비자이동학)교수, 姜三植(제약학)교수, 朴世源(성악)교수, 金永旭(기악)교수, 金炯培(기악)교수, 朴明姬(의학)교수, 尹容範(의학)교수, 金光顯(의학)교수, 朴聖會(의학)교수, 徐維憲(의학)교수, 禹鍾仁(의학)교수, 黃琪源(환경조경학)교수.

한편 金容益(의학)교수가 명예퇴직했으며, 李茂夏(농생명공학)교수가 의원면직했다. 〈香〉



吳然天총장, 申榮均동문, 申彦植대표

영화배우 申榮均동문

모교에 제주도 대지 2만평 기부

한주홀딩스코리아 申榮均(치의학48-55) 명예회장이 모교에 1백억 상당의 제주도 중문단지 토지 6만6천여㎡(약 2만평)를 기부한다. 지난 2월 15일 모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吳然天총장, 申榮均동문을 비롯해 한주홀딩스코리아 申彦植대표, 신영균예술문화재단 安聖基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영균-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申동문은 “영화배우로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었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온 삶의 여정이 영화와 같다”

며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결심하게 됐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모교는 申동문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을 모교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申동문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5~16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백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해 ‘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5백96명에 12억3천5백만원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3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와 가족 60여명, 장학생 3백여명과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를 포함해 총 3백70여명이 참석했다. 발전기금은 올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약 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에는 5백96명에게 12억3천5백만원을 수

여했다. 1999년 처음 장학생을 선발한 이래 9천여 명의 학생에게 약 1백8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발전기금은 현재 1백90여 개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10여 개의 특지 장학기금을 추가 설립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최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은 기부자의 뜻을 되새기고 장학생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과대학

마크 창 교수 특강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2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미국 프랭클린 W. 올린 공과대학 마크 창(Mark L. Chang)교수를 초청해 온라인 무

료강의 사이트 개발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다. 李基俊 前총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보직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된 강연에서 창 교수는 프랭클린 W. 올린 공대의 공학교육 및 교과 과정 소개는 물론 온라인 강의가 주는 효용에 대해 설명했다. (美)

재학생의 소리

“커피 향 가득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Caffe人’은 국내 최초 대학생 커피동아리입니다.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친목 도모의 매개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면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커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커피를 통해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Caffe人을 만들었습니다. Caffe人은 에스프레소를 뜻하는 ‘Caffe’와 사람을 뜻하는 한자 ‘人’을 합쳐 만든 명칭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커피의 주성분인 Caffeine과 발음이 같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affe人의 주요 활동은 커피모임, 일명 ‘커피모임’입니다. 커피모임은 동아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주최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보통 10회 이상의 커피모임이 열리며, 1년 간 전문적인 커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

부분 신입회원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고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1학기에는 드립 커피 교육을 진행해 정기적으로 국내의 유명한 바리스타를 찾아가 직접 드립 커피를 배웁니다. 2학기에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음회를 열어 동아리 홍보 및 영세 자영업자 홍보와 같은 자선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로망! ‘축제’에 저희 Caffe人이 빠질 수 없는데요, 저희는 동아리 MT를 항상 축제 전 주말에 갑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내 동



李 殷 燮(기계항공공학08입)
Caffe人 회장

을 취득하기 위해 에스프레소머신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머신 사용법을 배우고 나면 11월에 일일카페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커피를 손님께 대접하며 보람도 느끼고 일일카페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고급 원두를 구매해 교내에서 무료 시

아리 자치공간이 없어 교육을 위해 강의실을 빌려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Caffe人은 누적 회원 수 2백20여명의 명실상부한 유명 동아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Caffe人은 커피와 함께 행복해지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커피향기와 사람향기가 어우러지는 Caffe人은 사랑입니다.





문의전화 02)3407-0617,0696

P A T



www.pat.co.kr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KOREA FINANCE CORPORATION

www.kofc.or.kr
금융지원 문의 1644-4100

활짝커라 중소기업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중소·중견기업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사회기반시설 확충 | 지역개발사업 지원 | 금융시장 안정

한화, 80억불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

مرحبًا. أنا مسرور بلقائك.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라크는 새로운 희망을 대한민국은 새로운 내일을 비춥니다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한화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라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더 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화가 먼저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키우겠습니다



김포공항아울렛



국가인증우수쇼핑점
國家認證優秀商店



서울 서부권 최대의 패션 아울렛 김포공항아울렛 양호석 회장

포춘코리아 2010년 12월 호
CEO 인터뷰 사진 중



올해로 개점 7주년을 맞은 김포공항아울렛은 서울 서부권 최대의 패션 아울렛으로서 “싼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는 쇼핑 공간이다. 1층은 여성의류인 영 캐주얼, 여성캐릭터 및 캐주얼, 피혁 잡화, 화장품, 귀금속 매장과 2층 스포츠, 아웃도어, 골프의류, 이지캐주얼 및 남성복 매장이 있으며, 3층에는 아동, 란제리, 이동통신 및 식음료 매장 등으로 총 250여개의 국내외 유명 패션브랜드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김포공항아울렛이 직영하는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더 스카이온은 600석 이상의 넓은 공간과 최고의 요리사가 선보이는 메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국가인증우수쇼핑점(國家認證優秀商店)에 선정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신뢰가 가는 쇼핑센터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근처 상권에 NC백화점 강서점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김포공항아울

렛은 위기를 맞은 듯했다. 그러나 양호석 회장은 이것이 또 다른 기회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잠재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항 상권이 더욱 활성화를 띄게 되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 것. 실제로 서남권의 상권 규모의 확대로 인해 객수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김포공항아울렛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개점 2주년을 맞이하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김포공항아울렛 2호점 또한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이며 지역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란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하프클럽과 GS shop등 대형 온라인 물에 입점하여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김포공항아울렛만의 온라인 물을 오픈할 예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고친다는 뜻의 과측물탄개(過側勿憚改),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는 뜻의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通, 不通則通)이 올 해 양호석 회장이 임직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양호석 회장이 이끌어갈 김포공항아울렛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콩트 릴레이

우연

玄 林 鍾(상학56-60)수필가



내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합격하고 입학한 뒤 첫 강의시간이 철학시간이었다. 권 모 교수는 강의 시작하자마자 ‘우연’이라는 말은 철학에서는 없다고 외쳤다. ‘우연히 누굴 만났다’라는 말은 그가 그 곳에 갔기 때문에 만난 것이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 강조했다.

나는 지금도 이 우연이 없다는 철학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겪은 우연이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 때 초등학교 5학년인 내가

발각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가? 인민군 지휘관이 내가 숨은 바위 위에 서서 지휘하라는 필연이 있었을까?

내가 부상당한 후 후송되는 아전병원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육군병원에 가면 무조건 부상당한 다리를 잘라 버린다는 것이다. 군의관들이 의대 1~2학년 수료생들이라 어려운 수술을 피하고 절단해 버린다는 말이다.

육군병원에 도착해 수술실에 들어가자 군의관에게 다리를 자르지 말고 수술해달

랐다. 그 학교에서 1등만 하던 수재였는데 피난 와서 일곱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와 친하게 되자 나는 내가 기거하는 미국공보원 숙직실에서 같이 잠을 자도록 공간을 내줬다.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했다. 사실 그 당시 내 식사란, 콩보리밥에 마늘장아찌밖에 없었으니 그에게 나눠주기에 부끄러운 지경이었다.

나와 같이 지내게 된 그는 놀랍게도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또 공부를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우 규칙적인 공부습관이었다. 3개월쯤 지나자 그는 나에게 “너는 지금처럼 일찍 잠자고 늦게 일어나서 언제 공부를 할거냐?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가르칠 터이니, 나를 따라서 공부를 같이 하자”고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나보다 달랑 열흘 먼저 태어난 동갑내기였지만, 중학교 3학년인 나와는 학년으로 3년이나 선배로 앞서 있었다. 나는 전쟁터에 갔다 오기도 했지만, 공부실력도 형편 없이 뒤쳐져 있던 상태였다. 그 뒤로 그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나의 노력이 결합해 나날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던 서

다. 눈앞이 캄캄했다. 당시에는 항공편이 없었으므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오늘 저녁때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목포에서 뒷날 아침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저녁 무렵에야 서울역에 도착 가능했다. 꼬박 24시간이 필요한데, 내일 아침 10시까지 무슨 수로 서울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제주도의원 J씨와 마주쳤다. 그 순간 우리 머리 위로 군용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이 보였고, 나는 J의원에게 저 비행기가 웬 비행기냐고 물었더니

“3·15 정부통령 선거 독려차 내려온 임모 국회부의장을 모시러 오는 거야”하는 것이다.

“저 비행기, 탈 수 있게 해 주세요”하고 부탁하자, “같이 비행장에 가 보자”고 하여 둘은 비행장으로 뛰었다. 국회부의장 일행과 제주도지사 등 유지 일행이 기념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J의원이 사진찍는 일행 속에 끼어 있으면서 나를 향해 “현 군! 국회부의장님 가방을 땀땀 비행기에 싣지 않고, 뭘 그리 우두커니 서 있는 건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얼른 가방들을 들어 비행기에 운반해드리니, 공군병사들이 받아 올렸다. 가방들을 다 올리고 또 다시 비행기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에게 J의원은 “올라가서 짐 정리하지 않고 뭐하는 건가?” 하고 다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제야 공군병사가 내 손을 잡아 비행기 안으로 올려주었다.

기념사진 촬영이 끝난 국회부의장 일행들이 모두 비행기에 오르자, 비행기는 바로 이륙해 곧장 서울 여의도비행장까지 날아갔다. 비행기 안에 있던 공군들은 나를 국회부의장 수행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J의원은 공군당국에 나를 비행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므로 요령을 부린 셈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 보는 비행기를, 게다가 공짜로 탄데다가 시간 안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 면접시험도 놓치지 않았다. 우연히 길가에서 J의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됐을까? 국회 부의장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마침 그 순간에 알맞게 제주에 왔던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가?

2005년 5월 우리 부부는 중남미 6개국을 18일 동안 여행했다. 마지막 날 페루에서 밤 12시에 미국 LA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그 비행기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출발해 페루를 경유하는 비행기라서 탑승객들이 이미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 내외가 배정받은 자리에 도착해 보니, 창가 자리인 우리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통로쪽 좌석의 손님을 깨워야만 했다. 그 손님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한잔에 빠져 있었다. 미안스러워도 조심스레 깨웠더니 눈가리개를 벗으면서 나를 쳐다본 그녀는 “할아버지!”하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닌가. 칠레로 이민 간 친족손녀 내외가 LA로 가는 길이었다. 그 큰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도 이민 간 관당(친족)을 만나다니….

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연히 도움을 받았고, 생각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우정을 이으며 살아왔다. 이런데도 정말 우연이 없단 말인가?

“

교수는 강의 시작하자마자

‘우연’이라는 말은 철학에서는 없다고 외쳤다.

‘우연히 누굴 만났다’라는 말은

그가 그 곳에 갔기 때문에 만난 것이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 강조했다.

나는 지금도 이 우연이 없다는

철학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연히 도움을 받았고,

생각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우정을 이으며 살아왔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살기 위해 한라산으로 피난해 소위 ‘꼭두새끼’생활을 하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내려올 때 중산간지대에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그 때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었고 귀순자 수용소에서도 빨리 나올 수 있었으며, 또 다시 학교로 복학할 수도 있었다. 선생님은 선무공작대원으로 군 부대에 위문 공연하러 올라가는 길에 산에서 잡혀 내려오던 나와 마주친 것이니 정말 우연이 아니고 무엇인가.

6·25전쟁 때 17세의 어린 나이로 전선에 나아가 왼쪽 다리에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다음 물려오는 적의 포위에서 재빨리 피하려고 큰 바위 밑으로 숨어들었다. 물려온 적들이 부상당한 아군의 양눈과 심장을 총검으로 찌르며 확인 사살하느라 미쳐 날뛰면서도 정작 내가 숨어 있던 바위 밑은 수색하지 않아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한 시간 이상 휘젓고 날뛰던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조용해지자 슬금슬금 기어나와 보니 내가 숨었던 바위 위에서 인민군 지휘관이 서서 지휘했기 때문에 인민군 쫓병들이 높은놈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군의관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군의관은 마취 명령을 내렸다. 수술이 끝나고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내 다리는 잘리지 않은 채 깁스로 감겨져 있었다. 알고 보니 군의관은 내 다리를 자르려 틈을 갔다 대는데, 그 때 나는 마취 상태에서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천주님! 제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모 마리아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마침 나를 마취시킨 여자 간호병이 천주교 신자여서 이를 지켜보다가 마음이 움직여 군의관에게 다리를 자르지 말고 총알 뽑는 수술을 하도록 설득했던 것이다. 수술이 어려워져 시간은 더 지체됐지만, 내 다리는 건재할 수 있었다. 전쟁통의 육군병원에서 이런 우연으로 천주교 신자인 간호병의 도움을 받았으니 기막힌 인연이 아닌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부상으로 명예제대해 돌아와 USIS(미국 국무성 주한미국대사관 제주 미국공보원)에 근무할 때였다. 공보원에 와서 전시물을 관람하며 오랜시간 홍보물을 구경하는 피난 온 학생을 만나 사귀게 됐다. 그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생이

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해 제주를 떠났다. 서울 수복 후에는 모교인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주말 모의고사 문제지를 구해다 매주 우편으로 나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편지로 ‘이 문제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실제로 시험 보듯 시간 맞춰서 풀어 보아라. 60점 이상 맞게 되면 서울대에 합격 가능하다’고 적어 보냈다. 그의 헌신적인 후원 덕택으로 나는 오현중·고등학교 6년을 야간생으로 그 것도 밤에는 영화상영차 시골을 돌아다니 허구한 날 결석만 했던 내가 서울대 상대에 합격하는 행운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와 내가 만난 것은 金日成의 남침덕(?)이었지만, 정말 우연한 인연이었다.

1960년 3월 8일 결혼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농업은행에 응시한 후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였고 아직 면접이 남아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려 제주로 내려오면서 면접통지가 오거든 전보(당시는 전화가 없었음)로 알려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다. 장가간 다음 날(3월 9일) 낮 12시경 전보가 왔다. 3월 10일 10시까지 농업은행 본점으로 출두해 면접을 치르라는 내용이었

동 정

수 상

▲閔庚甲(회화53-57 단국대 석좌 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4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孫京植(법학57-6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2월 13일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李基和(물리59-63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4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 부문) 수상.

▲李漢龜(철학64-68 성균관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4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 부문) 수상.

▲曹洙哲(의학67-73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소장)=지난 2월 18일 정부의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수훈.

▲鄭洪化(대학원69-71 덕성여대 명예교수)=지난 2월 21일 대한약사회가 수여하는 제39회 약사금탑상(약학연구 부문) 수상.

▲金仁圭(정치69-73 前KBS 사장·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디지털방송 전환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張太平(사회70-77 한국마사회장)=지난 2월 21일 시집 '강물은 바람 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로 제16회 한국문학예술상 수상.

▲姜承求(법학80-84 재단법인 행복세상 사무총장)=지난 2월 15일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임장관표창 수상.

▲宋永吉(ACAD 56기 인천광역시장)=지난 2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오르지나 드루쥬비 훈장 수훈.

▲朴聖炫(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지난 2월 2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7대 원장에 선임.

鄭洪原총리...장관 후보에 서울대인 1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에도 동문 5명



국무총리 鄭洪原



경제부총리 玄許錫



교육 徐南洙



외교 尹炳世



국방 金秉寬



안전행정 劉正福



문화체육 劉震龍



농림축산 李桐弼



산업통상 尹相直



보건복지 陳 永



여성가족 趙允旋

지난 2월 26일 국회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쳐 새 정부 국무총리에 鄭洪原(ACAD 57기)前대 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2월 13일에 교육부장관에 위덕대 徐南洙(철학71-75)총장, 외교부 장관에 尹炳世(법학72-76)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장관에 金秉寬(국사74-76)前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劉正福(한대원86-88)국회의원,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에 가톨릭대 劉震龍(무역75-79)한류대학원장이 지명됐다.

또 17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玄許錫(경영70-74)한국개발연구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李桐弼(대학원81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尹相直(무역75-81)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陳 永(법학71-75)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趙允旋(외교84-88)前국회의

원을 지명했다.

한편 18~19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李南基(대학원72-76)SBS미디어홀딩스 사장, 경제수석비서관에 趙源東(경제75-80)한국조세연구원장,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牟喆敏(한대원82-87)예술의 전당 사장,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 崔聖載(사회사업66-70)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朱鐵基(서양사학73졸)前駐프랑스 대사를 기용했다.

인 사

▲文昌克(정치68-72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27일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에 임명.

▲李鍾瑞(사회교육73-77 前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지난 3월 1일 임기 4년의 관동대 제7대 총

장에 취임.
▲宋熙永(영문74-78 조선일보 논설주간)=지난 2월 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출.

▲趙炳顯(법학74-78 대구고등법원장)=지난 2월 14일 대전고등

법원장에 임명.
▲崔羽植(법학75-79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

▲白錫鉉(경영78-82 SK해운 사장)=지난 2월 21일 한국해양소

좋은사랑만다
결혼해 듀오

성혼회원수 26,104명 (2013년 1월 14일 기준)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김혜정(82入독여독문)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년단연맹 제16대 총재에 취임.

▲趙龍鎬(AIP 3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장에 임명.

▲高熙權 (GLP 19기 테엔에스개발 대표)= 지난 2월 1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회장 권한대행에 선임.



행사

▲鄭明煥(불문48-54 前모교 불어
불문학과 교수)=지난 2월 15일
1952년 이후 단상들을 묶은 '인상
과 편견'(현대문학刊) 출간.

▲俞東濟(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지난 2월 15일 농촌진흥청 박원출 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한 후 식물공장 및 유전자원센터 방문.

▲尹明老(회화56-60 모교 서양화
과 명예교수)=
오는 3월 25일
부터 6월 23일
까지 과천시 국
립현대미술관
서 회고전 개최.

▲李在昌 (법학56-60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지난 2월 1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아프리카 말리위 조이스 반다 대통령 내외와 새마을운동 사업 논의.

▲韓永愚(사학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최근 栗谷 李珥의 인간적 고뇌와 약점에 주

목한 ‘율곡 李珥 평전’(민음사
刊) 출간.

▲權 誠 (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 지난 2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교육원과 교육사업 업무협약 체결. 또 25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술교류를 위한 MOU 체결.

▲張明奉(형정63-72 국민대 명예 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2월 28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법률적용’을 주제로 윌레발표회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 연구원장)=지난 2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SAP코리아 邢康準 대표를 초청, '마켓3.0과 팅크경영'을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安京煥(법학66-70 모교 법학부 교수)= 지난 2월 12일 국가인 권위원장 시절을 되돌아본 회고록 '죄유지간 인권 이다'(살림타이판) 출간.

▲金榮愛 (성악67-71 가창대 교수·소프라노)= 오는 3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메르카단테, 베르디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李在然(가정관리70-74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장)=지난 2월 13
일 서울 우면동 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세미나 개최.

▲**龔琪榮**(경영 72-76 삼성경제연
구소장)= 지닌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 관에서
‘한국형 시장경
제체제의 모색’
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柳權永 (의학72-78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아
시아태평양암예
방기구 사무총
장)= 지난 2월
15~16일 태국
파타야에서 아태
암예방기구 창설 12주년 기념 심
포지엄 및 아시아암이니셔티브 발
대식 주관.

▲韓蕙慶(회화75-79 한국미술협
회 회원)= 지난
3월 6~11일 서
울 관훈동 인사
아트센터에서 제
8회 개인전 개
최.

▲趙源東 (경제75-80 한국조세연
구원장) = 지난
2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서 한국재정법학
회와 공동으로
'국가부채와 재
정준칙' 정책세미나 개최.

▲朴京沃(기약77-81 한양대 교수·첼리스트)=

 오는 3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
 당 IBK챔버홀에
 서 베토벤, 멘델
 스존 등의 작품
 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宋在光(기악80입 이화여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라벨, 프랑크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敬喆(환대위83~88 한국교토

▲金敬喆(환대원83-88 한국교통

연구원장)=지난 2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미래 교통부문 투자' 국제세미나 개최.

▲**황진학**(관악87-93 퍼커서니스 트)=지난 3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크세나키스, 슈미트 등의 작품으로 타악기 독주회 개최.

▲코야르나(성악98-02 소프라노)= 지난 3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구노, 마스네, 드뷔시 등의 작품으로 귀국 동창회 개최.

▲유지연(기악99-03 바이올리니스트)=오는 3월 16일 서울 부암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丁銀靜(기악99-03)동문과 함께 두오 콘서트

트 개최.
▲최 인(기악05졸 기타리스트)
=지난 3월 3일 서울 금호아트홀
에서 한국기타연주가협회 제7회
초청연주회 개최.

▲安鎬元 (HPM 6기 한국심성교육
개발연구원장)
= 지난 2월 6~
8일 수도권 지역
개척교회 10여
곳에 겨울외투,
가래떡, 고기 등
전달.

▲梁鉉洙(AMPP 9기 군장대 교수)=최근 해방대사령부 군사학술용역 '위그선'의 상륙작전 운용 방안'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李完基(영어교육45-48 前도이치뱅크 고문)=2월 16일 별세(91세)
- ▲金鎮萬(영문49쪽 성공회대 초빙교수)=2월 9일 별세(87세)
- ▲李正煥(지질과학50쪽 前대한지질학회회장)=2월 20일 별세(89세)
- ▲鄭溶載(생물46-50 前이화여대 교수)=2월 6일 별세(88세)
- ▲朴魯壽(회화46-52 예술원 회원)=2월 25일 별세(86세)
- ▲文仁龜(법학47-50 前대한변협 회장)=2월 5일 별세(89세)
- ▲愼國範(건축50-56 서한종합건축 회장)=2월 13일 별세(83세)
- ▲成贊慶(영문50-57 예술원 회원)=2월 26일 별세(83세)
- ▲李在泉(법학52-56 前한국관광대학 학장)=2월 13일 별세(78세)
- ▲張 湔(정치55-61 前경향신문 논설위원)=2월 7일 별세(77세)
- ▲尹東旻(법학63-67 변호사)=2월 7일 별세(68세)
- ▲劉里知(응용미술64-68 모교 명예교수)=2월 18일 별세(68세)
- ▲金成麟(축산77-82 씨티씨바이오 사장)=2월 15일 별세(55세)
- ▲金相澈(외교83-90 前한국일보 사회부장)=2월 16일 별세(49세)
- ▲申鉉甲(AMP 54기 前KB금융지주 부사장)=2월 18일 별세(58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합의사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

이화여자 대학교 총동창회
합의사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

고려대학교 총동창회
합의사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합의사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

전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성혼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 : 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 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뉴저지지사] 26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하탄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RN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HYUNDAI
MOTOR GROUP

현대건설, 대한민국 글로벌건설의 선두에서 9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현대건설은 1965년 국내최초 해외진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 51개국에서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수주누적액 900억 달러 돌파]

WE
BUILD
TOMORROW

현대건설

K water

물

희망이 흐르는 대한민국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물.
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채워갑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
2013
세계 물 협력의 해

- 수자원시설 건설·관리**
 - 소양강 충주댐 등 전국의 16개 다목적댐과 수자원시설 운영
 -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용수공급
- 상하수도 건설·관리**
 - 전국 상수도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3,415백만㎡ 공급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도 통합운영관리
- 국가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 창원·구미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 안산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
- 녹색성장사업**
 - 시화조력, 합천호 수상태양광, 아라뱃길 풍력발전 등 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개발
- 해외사업**
 -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21개국에 물 관련 기술 수출

K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신 간

■ 인고의 세월

— 金錫營 지음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金錫營(형정51-55) 동문이 고뇌에 찬 사랑, 행복, 정의 그리고 조국에 대한 희망찬 내일을 향해 험난한 세월을 헤치고 세상을 뚫고 나아갈 용기를 전해주는 책을 펴냈다.

전체 흐름에 인생의 교조적인 면을 강조한 글들로 구성돼 있다. 의미는 깊지만 문장의 형식은 문학적으로 표현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했다. <풀이판> 값 14,000원

■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융합

— 鄭寅錫 역



이 책의 편저자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는 체코 출신의 정신병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제1세력), 행동주의 심리학(제2세력), 인간학적 심리학(제3세력)에 이어서 제3세력의 에이브러햄 매슬로, 안소니 수티치와 더불어 제4세력의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정의하고 출발시켰다.

한국트랜스퍼스널학회 鄭寅錫(교육51-55 前명지대 교수)고문이 국제트랜스퍼스널학회(1976년

창립)의 초대 회장이었던 그로프가 제7회 국제트랜스퍼스널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가운데 발췌해 편역했다. <학지사刊> 값16,000원

■ 한국은 어떻게

원자력 강국이 되었나

— 李宗勳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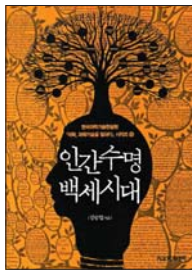
한국 전력 공사 사장을 지낸 李宗勳(전기공학53-57) 동문이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기까지의 엔지니어들의 노력을 소개한 책.

이 책은 한평생 전력사업에 몸담으며 대한민국의 맥박을 뛰게 한 엔지니어 CEO의 꿈과 도전의 기록이다. 그리고 평사원으로 입사한 인물로는 최초로 한국전력의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李東勳의 50년간 회사생활 노하우를 꼼꼼하게 담고 있는 성공 노트이기도 하다. <나남刊> 값 35,000원

■ 인간수명 백세시대

— 金承業 지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노년인

구의 의료와 복지 문제이다. 중앙대 의대 金承業(의학54-60) 석좌교수가 일반인들에게 노화와 장수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펴냈다.

수명 결정에 장수 유전자가 미치는 요인,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등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자유아카데미刊> 값16,000원

■ 국민 합의의 분석

— 黃壽淵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79) 교수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뷰캐넌·고든 킬 전교수가 집필한 공공선택론과 헌법적 정치경제론 분야 최고의 고전에 해당하는 책을 번역했다.

이 책은 바람직한 헌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지를 의사 결정 규칙들의 문제와 관련해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배우고 과반수 민주주의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다. <지식을만드는지식刊> 값38,000원

■ 이분법적 사고방식

— 安健勳 지음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강원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安健勳(대학원74-76) 동문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하는 하나의 특이한 사고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파헤쳤다.

이 책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공연

■ 鄭小姬 대금 독주회

— 3월 21일 부암아트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원인 鄭小姬(국악97-01) 동문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부암아트홀에서 대금 독주회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인 鄭동문은 이날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바탕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金殷蘭 피아노 독주회

— 3월 25일 세종문화회관

피아니스트 金殷蘭(기악94-98) 동문이 3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국민대 교수인 郭동문은 이날 헨델, 슈트라우스, 풀랑크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프랑스음악연구회 및 아시아 예술학회 회원인 金동문은 이날 바흐, 베토벤, 드뷔시, 라벨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趙炫秀 피아노 독주회

— 3월 28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趙炫秀(기악82-86) 동문이 3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인 趙동문은 이날 모쉴, 알베니즈,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郭賢珠 소프라노 독창회

— 4월 4일 세종문화회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소프라노 郭賢珠(성악84-88) 동문이 4월 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독창회를 연다.

국민대 교수인 郭동문은 이날 헨델, 슈트라우스, 풀랑크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속하는 대표적인 예들과 그 특징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한편, 그 역기능이나 문제점도 다뤘다. <서광사刊> 값26,000원

■ 쿠웨이트 여자

— 수아드 알 사바 지음

최근 아시아N(대표 李相起 서양사학81-87 본보 논설위원)에 '아랍의 詩香'이란 제목으로 詩를 연재해온 쿠웨이트 수아드 알 사바 시인의 시집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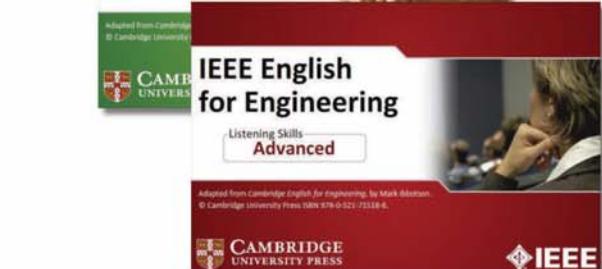
이번 시집은 수아드 시인의 2012년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을 기념하고 한국에 아랍의 시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쿠웨이트 여자'는 지난 1986년에 발간된 '여자 부스리기'와 '내 아들 너에게' 등 2권의 시집을 합본해 나온 시집이다. <아시아N刊> 값12,000원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공학자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IEEEExplore" 를 치거나,
'http://english.ieee-elearning.org/' URL에 접속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전공,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힘든 공학자들을 위해 IEEE와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네 가지 파트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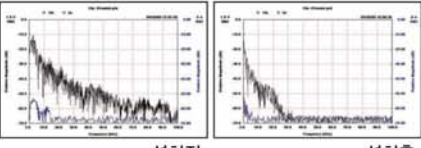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세 가지 Level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기기기보호 전력절감 EP 가 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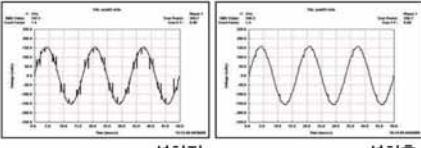
PLC, 모터, 인버터,
제어기기, 서버 ...

노이즈



설치전 설치후

전력파형



설치전 설치후

한국총판 (주)도일코리아 www.dokor.com 제조원 Environmental Potentials Inc. www.ep2000.com



부드러운 쉬폰케익 속의
진한 카카오맛!

KBS방영작 **구름빵**의 흥비,흥시와 함께하는

쉬폰케익 Chiffon Cake



동아제약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소리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박카스가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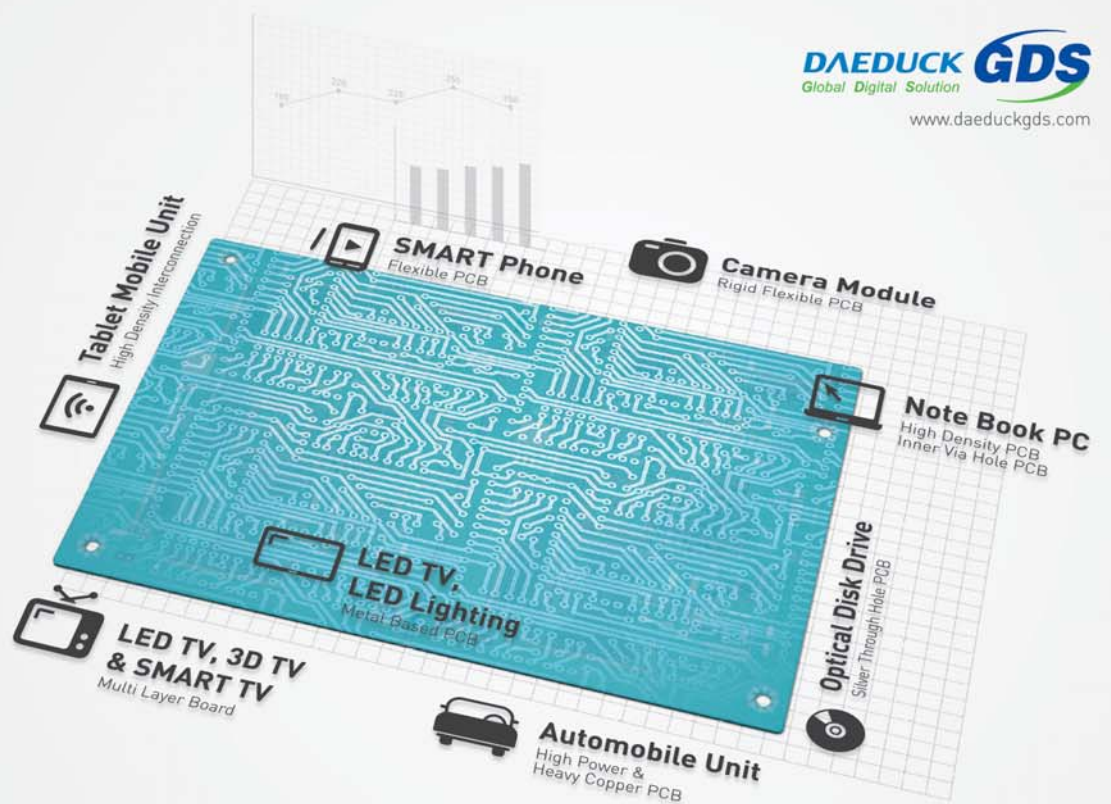
**플러라, 5천만!
플러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박카스는 타우린과 비타민B1등 5종의 비타민이 함유된 자양강장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활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덕GDS의 PCB제품은 당신이 노트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휴대폰 영상으로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가족들과 TV를 즐길 때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기술로 대덕GDS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DAEDUCK GDS
Global Digital Solution
www.daeduckgds.com

전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도전과 열정!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합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전 학문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섭니다

NRF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대전청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서울청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02-3460-5500

Yes! KS
부산경상대학교

Knowing, Surprising! Kyung Sang!



총장 이달덕
영어교육과 70학번

개그우먼 신봉선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엔터테이너 모델계열 99학번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2012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교육역량 우수대학**

2012년도 장학금 총 68억원 지급

교내장학금 31억9천만원 / 국가지원장학금 36억1천만원



www.bsks.ac.kr
입학안내 051)850-1210

학교법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봉로 170

NAVER

부산경상대학교



연산역

수영역

충렬사역



화신사이버대학교
HWASHIN CYBER UNIVERSITY



부산외국어고등학교
PUS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공회당사방
부산경상대학교부속유치원
BUSAN KYUNG SANG COLLEGE LAB KINDERGARTEN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12. 26~2013. 1. 29) · 일반 (2012. 12. 26~2013. 1. 3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俊行= 1백만원
△부회장 金宗鎬= 50만원

상임이사

△姜普英 AIP동창회장= 20만원
△李世漢 AIC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만수 법대65
△고경일 ABP11 △고원주 음대92
△권노갑 AMP26 △권혁길 大院78
△김경욱 치대70 △김광호 치대88
△김구섭 사회72 △김동문 AMP41
△김미금 의대90 △김영대 법대61
△김윤신 保院72 △김평원 사대01
△성철용 사대56 △신명규 사대48
△안홍섭 공대75 △양태현 의대70

△오지철 법대69 △윤용복 인문84
△윤홍근 문리63 △이돈구 AFP4
△이상길 AIP41 △이석수 법대81
△이세락 AMP45 △이숙향 사대76
△이영한 공대76 △이진원 ACAD29
△이창희 行院82 △임상표 농대90
△임영빈 공대91 △장기원 ASP5
△전승준 자연74 △정옥자 문리61
△정재훈 ACPM7 △조성복 치대55
△최병도 AMFR12 △최종선 GLP4
△하전기 사회73 △홍영기 상대57
△황우택 SPAR12

(일반) △강영재 사회83
△강정환 공대66 △강준수 자연04
△강희성 법대05 △고삼숙 간호84
△권성건 공대74 △권이용 사회81
△김강수 공대03 △김경욱 약대64
△김광득 經院66 △김금자 간호03
△김남택 상대62 △김명호 공대69
△김무하 자연84 △김봉식 농대75

△김성익 문리64 △김소현 음대94
△김안순 공대54 △김영진 공대72
△김용창 공대62 △김용환 공대83
△김윤기 미대78 △김인숙 ALP16
△김자성 의대81 △김재원 공대61
△김재택 공대57 △김정기 문리56
△김종남 AFB12 △김종민 사회85
△김진섭 공대06 △김태곤 법대05
△김현수 공대73 △김형일 GLP17
△김형진 의대83 △남보라 의대02
△류태환 상대48 △문인식 AMP72
△박경현 사대64 △박성룡 공대80
△박성연 미대89 △박성훈 AFP10
△박영욱 IFP6 △박영훈 경영85
△박인성 GLP20 △박정국 공대77
△박제교 의대45 △박한용 공대99
△서봉경 사회80 △성완희 문리57
△손광섭 경영84 △송정근 인문80
△송정식 공대67 △송창수 ABP10
△신인수 공대06 △신재현 保院07
△신철지 사대60 △심영수 의대63

△안길용 법대65 △양시형 약대04
△양현수 공대08 △엄병현 농대84
△염용태 의대58 △오병수 APC13
△오원복 GLP25 △오정일 사회88
△유태환 공대77 △유효근 APC11
△윤득노 농대04 △윤여일 AMP13
△윤혜경 미대76 △이 연 상대59
△이 현 법대85 △이강추 약대54
△이경록 공대99 △이구택 공대64
△이규식 자연88 △이기화 사회79
△이득주 ALP3 △이범신 經院69
△이상찬 경영72 △이성환 의대60
△이승준 AMP69 △이양호 ACAD18
△이연수 상대64 △이원식 의대83
△이인규 자연68 △이임수 음대81
△이종대 AIP46 △이준형 사대77
△이한수 ALP16 △이화영 공대56
△임광순 문리68 △장재학 농대78
△전병일 공대77 △전용우 AMP65
△정요찬 공대05 △정운찬 상대66
△정진엽 의대73 △정희정 경영06
△조갑욱 문리59 △조성지 공대04
△조연신 음대89 △조유희 자연88
△조재영 의대95 △진수형 AFP9
△차경선 생활08 △천성문 HPM28
△전정웅 농대62 △최영명 공대69
△최재승 ACAD38 △최정연 의대68
△최창일 농대64 △최호석 경영04
△태성은 ALP14 △한동수 자연83
△한성권 AMP73 △한용의 AMP39
△허영성 치대84 △홍갑선 농대54
△홍민희 GLP25 △황국현 경영01
△황명욱 미대73 △황병순 농대04
△황이령 공대05 △황정환 IFP1
△황찬홍 법대65

△김사일53 △김상도69 △김태호80
△김희성61 △류기락81 △박래경51
△박창용65 △박형만75 △신인호88
△오박철61 △이계홍56 △이우종81
△임봉주65 △임진득74 △채수근54
△하영주83 △홍현주73
◆문리대 △고 건56 △구태희46
△김 명67 △김건중66 △김용범60
△남시욱54 △변 형61 △이상무61
△이정남51 △정무호61 △하영준55
△한기호57
◆미대 △김현실66 △전영철53
◆법대 △구본민77 △권기수73
△권혁채60 △김귀동70 △김명주87
△김범수82 △김성길60 △김승진57
△김영갑74 △김영상54 △김용철46
△김재호51 △김종현89 △김태조54
△김학의76 △김하남49 △김형렬83
△김홍현67 △나경원82 △류시열57
△민병환66 △박광천81 △박성철75
△박연철68 △박인제71 △박장우66
△박준서59 △배 도53 △배기열82
△백준기77 △서복현76 △신인식74
△신정철52 △심상철76 △심재갑52
△오연근76 △유홍섭78 △윤경희65
△이근식65 △이기웅50 △이대순53
△이상우67 △이영욱52 △이형진81
△임규운53 △임인택58 △전수진86
△정대철62 △정우모56 △정지형58
△정철승89 △정휘우62 △조성제85
△조성제85 △최근선54 △최기정60
△최세관54 △한광수65 △한재현67
△황정열85 △황진구88
◆사대 △강병근67 △강철용69
△김주화65 △김찬규83 △김창선61
△김충연58 △류근찬68 △민경현53
△박영배65 △박종세55 △임창선72
△정의포70 △표진이66
◆상대 △고병우52 △고일성54
△권희구66 △기병태53 △김승훈68
△김연배64 △김영식66 △김완기46
△김인호61 △김정우65 △김종국55
△박병준61 △배경일69 △서주성44
△신해철69 △안태호45 △우완식57
△유영일53 △이상윤62 △이운우68
△이일훈55 △이정복54 △이철희57
△전종환51 △조문규57 △조원래57
△한찬수54
◆생활대 △박성희73 △손인희72
△우경자61 △이선영78 △조성교69
◆수익대 △김본원63 △박근하76
△박종명61 △박희준66 △배상호64
△이강문60 △임영철74
◆약대 △강 서58 △김동춘55
△김영택58 △김우영67 △김원복78
△김진우54 △김진훈71 △문원호65
△서석수51 △이가평60
◆음대 △홍지영83
◆의대 △김병재93 △김승욱50
△김찬영46 △노충희70 △박문갑46
△양승욱06 △유태연54 △이진호70
△장윤석49 △정명관91 △지삼봉55

이 사

◆인문대 △김덕수83 △김병철76
△김원환81 △류 진78 △이선일79
◆사회대 △김광재90 △김기식85
△박재하77 △박중욱81 △성은식76
△이주홍88 △정 도86 △최완근81
◆자연대 △김남수73
◆간호대 △남은숙75
◆경영대 △권기출72 △김선구73
△김영기73
◆공대 △강명순40 △강영훈72
△고재홍75 △김광근53 △김병열72
△김영석73 △김유환62 △김종찬54
△김진원68 △김학노70 △김호수63
△류재욱86 △박재범84 △박준창47
△박창용66 △백만기72 △백승환71
△변응현66 △서우원61 △성백문83
△승효상71 △신철영70 △심재진76
△안용수73 △유병철42 △이경환83
△이남순72 △이병하69 △이재은61
△이종호59 △이주범56 △이중호70
△이충기66 △임재열82 △정성민61
△정태현73 △조영주74 △조영호67
△진영준67 △최 연68 △홍호식69
◆농대 △구현수67 △권명구68



the Galleria

△최경진68 △최규완55

◆치대 △강대준62 △김규진64
△김기현56 △김병수84 △김효은82
△류남순70 △문복강62 △박종만60
△백경동86 △윤봉윤79 △이봉호86
△이석형58 △이용오62 △장동재79
△장은식89 △정건용52 △정행남62
△한성훈60

◆대학원 △김승호83 △김준호86
△김창준86 △오문성84 △이정채83
◆경대원 △박정완91 △조현국73
◆보대원 △김병환65 △최진석86
◆사대원 △김창식67 △송정호66
◆행대원 △신순우74 △윤일규69
△이영태72 △최순현73

◆AMP △권오영64 △김건종38
△김진찬43 △남중철48 △민경서48
△서근석16 △오병제21 △윤용암66
△이경태31 △이태섭5 △정건택21
△정명섭49 △조승현66

◆AIP △박한창17 △신용기9
△이대만24 △최승규36

◆ACAD △곽기영54 △김태완44
△배윤도54 △정시채9 △최종욱20

◆ABP △이삼희20 △전안희20
◆SGS △김승규7

◆APC △김복승3 △김종섭8

◆HPM △김복희1 △김재영18
△윤귀남5 △이공순5 △이상완11
△최봉영22 △최창욱14 △하경호27
△황경수23

◆AFB △성태섭1 △이혁환9
△최태봉8

◆AMPFRI △김복엽23 △문윤봉15
△유영기23 △이규태14 △정지택3
△최창혁4

◆GLP △김병윤16 △이용문17
△이흥순12

◆ALP △김경일3 △소진세12

◆SPARC △방용수16 △백인호18
△임세현19 △임장주11

◆ASP △박상호16

일 반

◆인문대 △김경아85 △김매리07
△김세희01 △김효숙91 △문선호87
△박중보97 △박진우93 △박창언89
△서노원81 △서세림99 △서형배74
△석제범81 △송기국76 △오선아05
△이 건59 △이 흥78 △이건협86
△이상근97 △이용운00 △이주영05
△최기용74 △최영준94 △하지영04
△황진상98

◆사회대 △구현희03 △김승희87
△김영만84 △김용숙76 △김용표81
△나상수82 △문준석92 △문지혜06
△박다혜04 △박용현90 △박재진89
△백승훈80 △손신명78 △손영수87
△안기복89 △엄해림06 △연정은07
△유남길81 △유윤규85 △윤현종81
△이영수95 △이현태96 △임일섭83
△장진우88 △정달섭81 △정수용69
△정인석89 △정종제82 △주홍민91
△홍기현76

◆자연대 △강정환91 △김광우00
△김신우99 △김윤호02 △김은하06
△김태원93 △박용진99 △석희용82
△성환경81 △소상완86 △유봉희69
△이병홍66 △이상구81 △이상익88
△이준영81 △이창현00 △임병호05

△전동오84 △정동근84 △조완제84
△최유경08 △황열순86

◆간호대 △김매자60 △김제숙66
△박문희59 △신은숙65 △이선미06
△채영순70 △한혜숙72

◆경영대 △강성진96 △김명애85
△김선호81 △김오훈86 △김은호88
△김종훈86 △류상기78 △박두원90
△박봉호04 △박세혁97 △박세환85
△박희수71 △송호찬78 △안철환88
△이재욱88 △이재욱88 △장보훈83
△정갑석87 △조표훈95 △최상원01
△최종욱89 △허일섭73

◆공대 △강경탁52 △강영식64
△강우영88 △강윤정01 △강창수48
△강춘식55 △경창성65 △고창현64
△곽동수53 △구중서66 △권상익91
△권순영52 △권오규03 △권종은00
△권혁선72 △김광진04 △김근환86
△김기성94 △김남영69 △김동국91
△김동주53 △김상문06 △김상식58
△김상용54 △김상환73 △김성민03
△김신태63 △김영권83 △김영식66
△김영진53 △김영환56 △김영휘52
△김윤제62 △김재설57 △김재수91
△김정덕69 △김정수67 △김제욱73
△김종윤93 △김종학74 △김종환61
△김준수03 △김지환48 △김창현63
△김전환65 △김철호85 △김현중70
△김형석92 △김홍남03 △김홍수75
△김홍훈53 △남원장99 △노정의46
△노종석02 △류철호67 △문인삼55
△박광표47 △박동재51 △박동정54
△박문수82 △박상재84 △박승오69
△박영순54 △박완서04 △박용진51
△박원호85 △박의남49 △박종규88
△박종효77 △박준민99 △박전경52
△박한목87 △박현우07 △반치범93
△방종식02 △배준일98 △백덕현53
△백승석49 △서장렬83 △서효준55
△성영환58 △송수영51 △신기조43
△신대승55 △신동성64 △신인길80
△신정우07 △신현택48 △심창생60
△안병휘59 △양인철64 △양종화70
△엄승호78 △엄태석65 △연영소62
△오승용05 △오태웅94 △원준희49
△유교환56 △유병동94 △유봉환56
△유일상57 △육내승51 △윤상건73
△윤여경48 △윤재은82 △이 석47
△이갑표48 △이경선03 △이경신82
△이동린56 △이동욱82 △이동희85
△이승무61 △이승욱91 △이승호86
△이에민46 △이원찬03 △이유진63
△이윤식55 △이재흥71 △이정민52
△이주영07 △이준구97 △이지환04
△이진기46 △이창주97 △이현식61
△이형원04 △이흥근10 △이희근55
△임경준52 △임달연48 △임병문58
△임용택55 △임종엽50 △임현태78
△장길희75 △장영식80 △장재명57
△장홍규54 △전보영08 △전복현58
△전석병00 △전재도07 △정석현51
△정연수05 △정원영48 △정을호68
△정진삼61 △조 만56 △조건일62
△조국영92 △조남일70 △조영철03
△조용훈78 △조종현46 △주기만64
△최세근06 △최지형00 △한승호93
△한용희06 △한충수98 △한현철05
△허병호08 △현덕훈78 △홍성관61
△황원섭98 △황정태88 △황정현56
△황정정59

◆농대 △강경하74 △강예묵53
△강인평55 △고일웅61 △김규식72
△김대경51 △김억년61 △김우석64
△김원문67 △김원수56 △김재학53
△김주호55 △김진근56 △김진묵54
△김진오69 △김진웅60 △김진철51
△김찬조49 △김현용92 △김호탁58
△박경석52 △박경호84 △박관식54
△박동호74 △박상홍55 △박정윤55
△박진환48 △반성환50 △방수자62
△백상덕59 △서보성91 △설권석54
△송 흡03 △송계원45 △송기언55
△송준종55 △신동수55 △신민식57
△신재인56 △심재철57 △양대성98
△양두석51 △양시원02 △엄영현63
△오세승53 △오학영56 △우상호59
△우정식53 △유근영54 △이건우52
△이광웅61 △이기한55 △이도전55
△이순혁59 △이승세83 △이영문52
△이원식53 △이원식53 △이인형56
△이중훈48 △이지형64 △이진호57
△이진희81 △이태윤03 △이태일71
△장성구73 △장정수64 △전남수54
△전성익55 △정구현53 △정동성57
△정민환65 △정인무53 △정조래57
△정진국68 △정필수66 △조한보48
△조한욱53 △주승훈96 △차영준51
△천정하54 △최상수63 △최송웅60
△한상욱55 △한정식71 △한중희57
△허용갑81 △현호연53 △황용진56
△황인엽74

◆문리대 △강명순59 △강학철55
△공대식50 △김규완57 △김담구58
△김동욱65 △김명정64 △김석산58
△김용남63 △김용태53 △김용태65
△김정식62 △김태욱58 △김학종54
△김한배67 △김홍철53 △나기웅70
△나미례65 △나학진48 △노영식74
△명제영55 △문 용49 △박관운56
△박상우58 △박옥순59 △박재만54
△박종대60 △박진하48 △박창고59
△박형달55 △박희주53 △백병기60
△백영근55 △백제현48 △서민석53
△서병철59 △서병현53 △서정태55
△송업교61 △신동철58 △신장호59
△신효순61 △심기철61 △심사수54
△양동철58 △염태오59 △오인환55
△오임철52 △오재규52 △원이숙54
△유지현67 △유진당54 △윤용식59
△이 순55 △이 윤61 △이근남68
△이덕주66 △이상근59 △이승만62
△이억순54 △이영식51 △이영재62
△이재룡50 △이정덕55 △이정숙53
△이준모63 △이창훈47 △인운섭57
△임동규55 △장갑석53 △장영태64
△장종하59 △장진수65 △전대식53
△정삼윤64 △정주년63 △정춘영50
△조병연54 △조성호64 △조용주67
△조전식45 △최연상56 △최용욱62
△한문수44 △한철순58 △현영욱67
△홍순호57 △홍승국46 △황상연70
△황연익57 △황정웅45

◆미대 △강대운55 △강봉구04
△고경래88 △곽한익53 △김선미88
△김학두51 △김희춘62 △노숙자62
△박상민61 △박은경89 △박한진57
△안유신98 △윤형실54 △이은심78
△장근수56 △장정학60 △정규현02
△최형민01 △한연호77 △함혜란83
△홍현중04

◆법대 △강기철48 △강명식61
△강영균84 △강인현56 △강재섭67
△강태형57 △강형중84 △경익현57
△고명윤54 △고재천60 △구중희48
△권선용73 △권종철77 △김 현81
△김경수89 △김광주62 △김근태49
△김기수47 △김기인58 △김기현57
△김기형50 △김길영51 △김동규03
△김명종61 △김상기63 △김상태48
△김순구58 △김영균52 △김영기66
△김일덕56 △김정일97 △김주욱57
△김지현06 △김진홍57 △김철용54
△김철진50 △노영구51 △류준형51
△문대성85 △문진구01 △박 민96
△박용석74 △박천서56 △박창석62
△박치봉84 △배상오55 △백세웅64
△백영엽71 △백영엽71 △서승완58
△서영덕67 △손종대66 △송경숙91
△신근식63 △신상갑53 △신효성83
△심삼명60 △안남규50 △안변일61
△안병익88 △양승국77 △양승상56
△양정일87 △엄광호69 △염동희49
△오재선61 △오치룡65 △우영화62

地球입니까?
海球입니까?

생각의 축을 옮기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좁은 한반도의 땅만이 아니라 바다로까지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미래의 크기는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광대한 바다영토를 개척하고 내일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동원산업은 바닷길에서, 물길에서, 수산유통과 물류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꿈임없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산유통에서 물류까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46회의 선단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수산기업
48회의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선단을 보유한 동원산업은 적도의 태평양에서
지구 최남단 남령양까지,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새로운 어장과 미래식량을
개척하며 해가 지지 않는 수산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 물류시스템의 개척자 - 로엑스
중합물류기업 인증업체로 선정된 동원산업의 로엑스는 약 1,000여대의
전문 수·냉송차량과 풍부한 운영경험, 전문인력, 선진물류 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토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유통기업
특수 냉동탑차와 초저온 특수컨테이너 등 초현대식 수산유통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동원산업은 신선 유통시스템을 통해 갖 짝은 현지와 수산물인 신선함을
구하는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Dongwon
동원산업

△윤상목⁵² △윤재승⁸¹ △윤정경⁵⁵
△이광범⁷⁷ △이석봉⁴⁹ △이승훈⁸⁰
△이정민⁸⁸ △이제재⁴⁷ △이하우⁵⁸
△이한춘⁵³ △이혜원⁹² △임안식⁷³
△임태유⁵⁹ △장 호⁶⁷ △장명관⁵¹
△장백규⁷⁸ △장재윤⁸² △장준봉⁵⁵
△정경용⁶⁵ △정의식⁸³ △정인숙⁸¹
△정종국⁹⁰ △정지태⁵⁸ △정창섭⁷⁴
△정학철⁶⁴ △조남현⁵⁴ △조병선⁵⁷
△조용환⁷⁸ △조윤희⁸⁶ △조재호⁸⁶
△조혜남⁶¹ △주경진⁵⁵ △지원훈⁶¹
△최기선⁶⁴ △최병남⁶⁴ △최준기⁵⁷
△한상태⁵⁶ △한영광⁶³ △허무정⁷¹
△현종찬⁷⁴ △현휘남⁵⁷ △홍성인⁵⁸
△황선무⁵⁸ △황재성⁶⁴

◆사대 △강길선⁵⁷ △강신홍⁵³
△강한필⁵⁹ △강현재⁷² △구양언⁶⁰
△구자혁⁵⁷ △김 탁⁵² △김경자⁵⁸
△김계연⁶⁸ △김광운⁷³ △김광준⁶³
△김기곤⁵² △김길순⁶¹ △김명자⁴⁵
△김범기⁶⁶ △김봉민⁵³ △김성진⁵³
△김순신⁵¹ △김우탁⁵⁷ △김유경⁶⁵
△김윤미⁹⁴ △김재혁⁵⁰ △김종화⁶⁸
△김중자⁶¹ △김창경⁶¹ △김현곤⁵⁹
△나고찬⁵² △남규욱⁴³ △남기경⁵⁸
△류은선⁸⁷ △박규완⁷¹ △박노학⁵⁰
△박문수⁷⁴ △박성민⁷⁰ △박성희⁹⁰
△박순애⁵⁰ △박승환⁵³ △박영덕⁴⁹
△박영자⁴⁶ △박완규⁸⁰ △박은실⁰²
△박인식⁴⁸ △박정자⁵⁴ △박종곤⁶⁰
△박종대⁷¹ △박종삼⁵⁹ △방재곤⁶²

△백영묘⁹⁸ △서건룡⁶⁰ △서윤수⁴⁸
△성하경⁵⁶ △손수일⁴⁸ △손충익⁵⁶
△송승석⁵¹ △송재숙⁷¹ △송재식⁴⁹
△신명자⁵⁶ △신문섭⁶⁰ △안석로⁵³
△안정훈⁹⁹ △안종만⁵³ △안종환⁵⁵
△안희익⁵⁴ △염승민⁰⁶ △우상혁⁵⁶
△유상주⁵⁸ △유성렬⁶⁴ △윤성원⁵⁷
△윤희숙⁵⁷ △이강범⁵⁷ △이남구⁵⁸
△이미선⁷⁹ △이범훈⁴⁷ △이병준⁰³
△이상규⁵⁶ △이상재⁵⁹ △이석주⁵⁶
△이성현⁵⁶ △이세현⁵⁵ △이양선⁵⁶
△이영호⁵⁰ △이완식⁶¹ △이우진⁵³
△이은혜⁰⁷ △이은희⁹² △이정태⁵⁵
△이종덕⁶⁰ △이종덕⁶⁰ △이종연⁶³
△이주평⁶³ △이중석⁰² △이태현⁸²
△이현규⁶² △이현택⁵³ △이현택⁵³
△이호상⁵⁷ △이희명⁴⁹ △임수진⁸⁴
△임학수⁶⁹ △장선식⁵⁹ △장유미⁹⁹
△장제흥⁵⁵ △전래수⁵² △전쌍식⁸⁷
△전종대⁷⁵ △정동춘⁸⁰ △정두영⁶⁰
△정봉문⁹¹ △정상호⁶⁷ △정우상⁵³
△정은호⁵⁹ △정호경⁵² △제우택³³
△조성호⁷⁵ △조정제⁵³ △조준호⁷⁸
△최계숙⁵² △최생인⁵³ △최용섭⁵⁴
△최전승⁶⁴ △하만전⁵⁴ △하병권⁵³
△하영준⁵⁶ △현성준⁷⁸ △홍성숙⁵⁰
△홍인기⁵⁴ △황기탁⁴⁹ △황석근⁵¹
△황적륜⁵⁴

◆상대 △강좌희⁵⁵ △강태석⁵¹
△강화중⁶⁸ △고을상⁵¹ △곽 규⁵¹
△김기학⁵⁵ △김동휘⁴⁸ △김봉한⁴⁴

△김윤기⁵⁹ △김이규⁵⁰ △김재수⁵⁸
△김재진⁵⁴ △문영지⁵⁵ △박대룡⁵⁰
△박순태⁵⁶ △박지중⁶⁶ △박진화⁵⁵
△박창규⁵⁶ △박홍서⁴⁹ △배기수⁶¹
△변원욱⁴⁹ △서규상⁵³ △손명환⁶¹
△손홍규⁵¹ △송재관⁶⁶ △송주식⁴⁶
△안희중⁵⁹ △염재현⁶⁵ △유근성⁶⁶
△유대진⁵¹ △유병규⁵⁴ △유병무⁶⁴
△유병인⁵⁸ △육무수⁵³ △윤가현⁵²
△윤길현⁵² △이강전⁷¹ △이건희⁵⁶
△이근석⁵¹ △이석순⁵⁴ △이승균⁵⁵
△이영주⁵³ △이인덕⁶⁷ △이종연⁵²
△이창숙⁵⁷ △이창준⁵³ △이해웅⁵⁵
△인수환⁵⁴ △장동수⁵⁸ △정상진⁴⁹
△정세진⁵³ △정점식⁵⁸ △제정오⁵⁷
△조동후⁵¹ △조만제⁴⁸ △조문제⁵⁹
△조성진⁵⁵ △진영수⁶³ △채수환⁵⁶
△최인학⁵⁹ △허 김⁵² △허난린⁵³
△현임중⁵⁶ △홍성표⁵⁹ △황구백⁶³

◆생활대 △김동우⁹⁹ △김성희⁶⁹
△김순녀⁵⁵ △김지연⁸⁸ △서병숙⁵⁵
△신세영⁵⁸ △이창배⁵⁷ △이화숙⁵⁷
△정광호⁵⁷ △한경자⁶⁶

◆수의대 △구본훈⁵⁴ △김봉태⁹⁴
△김석래⁸² △남궁선⁵⁷ △박신규⁶¹
△박종영⁶¹ △어중원⁶⁵ △우영제⁶⁴
△윤성정⁶¹ △이문성⁶⁰ △이병준⁷⁸
△전원표⁵⁶ △조희택⁵² △홍순국⁵⁴
△홍중수⁵⁵ △황병주⁵⁷

◆약대 △강석훈⁰⁴ △강순철⁵⁹
△고건일⁶⁰ △국진섭⁵⁷ △김기현⁵²

△김원보⁵³ △김은영⁸⁹ △김태환⁰⁷
△노일협⁴⁵ △박문기⁴⁷ △박은유⁸³
△박지인⁰⁰ △박태동⁷⁷ △손선일⁵⁹
△송문정⁹⁰ △송지선⁰³ △양영자⁵¹
△염문경⁸⁵ △우제안⁵⁷ △이갑열⁵³
△이강영⁵⁷ △이상구⁵⁸ △이애영⁵⁶
△이종화⁵⁵ △정환수⁵¹ △조은정⁰⁰
△채계화⁵¹ △최병균⁵² △최현식⁶⁴
△한병훈⁵² △한은아⁹¹

◆음대 △강주령⁸³ △강병숙⁵⁴
△김숙이⁷³ △김영숙⁵⁵ △김형규⁶⁰
△박성진⁰² △박수진⁰¹ △방영호⁸⁰
△서유석⁸⁹ △유리나⁰⁵ △윤명순⁷⁹
△이기원⁷⁶ △이운정⁰⁴ △이은화⁰⁶
△이종남⁸¹ △정은이⁸¹ △정혜연⁰²
△지은주⁷⁷ △차세정⁹⁵ △홍승현⁸¹

◆의대 △고계환⁵⁰ △구본술⁴⁴
△김용진⁶⁹ △김종희⁵⁰ △김찬목⁴⁷
△박지순⁰⁰ △박점진⁰⁷ △배진선⁵⁸
△성송기⁹⁰ △송익훈⁴⁵ △신요철⁵⁴
△신주호⁸¹ △심성은⁹¹ △양만규⁴⁵
△오경균⁶³ △오준호⁴⁵ △왕영종⁵⁴
△이 희⁶⁸ △이왕재⁷⁶ △이종혁⁵⁵
△장수진⁰⁶ △전예근⁴⁶ △정범영⁹⁴
△정요한⁵¹ △정용현⁵⁶ △정재욱⁰²
△정태산⁵³ △조병주⁴⁶ △조성근⁴⁷
△지창도⁰¹ △최관홍⁵² △최수용⁰⁷
△최현규⁵² △황광민⁷⁸ △황세희⁸²
△황태영⁹⁵ △황효섭⁵⁸

◆치대 △김민섭⁸¹ △고진수⁵⁸
△김경원⁷⁰ △김규순⁶⁸ △김두현⁵⁸
△김명국⁵⁴ △김원겸⁸² △김태일⁷⁵
△김택근⁵⁸ △김택영⁷⁴ △남승우⁶³
△박기호⁵⁷ △서상주⁵⁶ △석진구⁵⁴
△손호현⁷⁰ △송병욱⁶⁵ △안진수⁰⁵
△이성원⁸⁰ △이승연⁶¹ △이정식⁵⁵
△이준기⁵⁵ △이창석⁹⁷ △이한규⁹²
△전훈식⁵⁹ △정태수⁸⁹ △조창홍⁴⁶
△최병건⁵⁵ △최승훈⁸¹

◆대학원 △김동식⁸⁵ △김상복⁹⁸
△김상호⁸¹ △김인배⁶⁸ △김형원⁸¹
△백진호⁹⁶ △오진욱⁹² △윤민재⁹⁰
△윤제범⁸² △한상서⁹⁵

◆경대원 △강희경⁷¹ △박정남⁶⁹
△이영희⁶⁷ △조형규⁶⁷ △최갑석⁷²

◆MBA △이희은⁰⁶
◆교대원 △변정숙⁶⁴

◆보대원 △김영웅⁷⁵ △김좌상⁶⁰
△노재영⁶⁵ △오병근⁸⁸ △윤병준⁸¹
△윤지선⁰⁴ △이지은⁰⁶ △이한구⁶⁹
△전태윤⁷⁷ △정건작⁸⁷ △정상조⁶⁷

◆신대원 △이준우⁷³
◆행대원 △강성원⁶⁸ △고재윤⁷⁶
△고충삼⁶³ △김경엽⁶¹ △김정중⁹⁴
△김한곤⁷¹ △박재석⁷¹ △신호현⁸⁴
△오태영⁸⁵ △유셋별⁰⁷ △유필우⁷⁵
△정강정⁸⁵ △정성태¹¹ △채희성⁷¹
△최찬섭¹¹ △푸름스퀘어⁰⁸

◆한대원 △강은순⁷⁴ △윤화일⁷⁹
△채승기⁸¹ △허 완⁷⁴

◆AMP △고용석³⁹ △곽병구¹⁷
△구광길³³ △김교철²⁵ △김배호⁵²
△김병두²⁴ △김성식⁴⁴ △김성언⁶⁶
△김용범³⁰ △김용수¹⁵ △나익수³⁸
△노선호²⁴ △박병억²⁰ △박인종²⁵
△박재상⁶ △박홍래¹⁰ △서효중³
△심행진¹⁶ △안종국⁷³ △오동빈²²
△오현택⁶⁹ △우상우¹⁸ △유재우⁴⁷
△유태영⁴⁵ △윤동균⁴⁶ △이성균⁵¹
△이성길³⁴ △이승휘⁴⁹ △이시용³¹
△이행기⁴⁸ △장남진⁴⁸ △장복진²¹

△정성봉²⁴ △정연동⁴⁸ △정용화⁶⁰
△조남용⁶⁸ △조내벽³¹ △조두희²⁹
△진홍균⁹ △최동만⁶⁶ △최영석¹¹
△최종명¹⁴

◆AIP △공소열¹³ △김경환¹³
△김일수¹⁴ △김정만⁴¹ △박남규⁴⁷
△박승욱²¹ △박인서¹² △백승호³⁸
△이봉훈³⁶ △이상호⁸ △이성남²⁹
△이현희¹⁵ △정주용³⁷ △홍강지³⁰

◆ACAD △강경보²⁰ △고세일³²
△김성현⁴⁰ △김시호⁷³ △김영준³¹
△김종해⁷¹ △김진섭³⁸ △남종우³⁰
△문동명⁴⁴ △성시철⁵⁵ △신정수¹²
△안인순⁵⁵ △오준환⁶⁹ △유재필²³
△윤준근¹³ △이경영⁷ △이보우³⁵
△이영희⁶⁷ △이종식⁷³ △이종우⁶³
△임충규⁴⁵ △조강호³⁷ △조옥식¹⁶
△조용안²⁹ △최덕률⁶⁸ △최병인⁵
△최봉인³¹ △황상모⁶⁶

◆ABP △강구현³⁵ △박영기²⁵
△박하용³⁹ △서재선⁴⁰ △서준용⁴⁰
◆SGS △유장식⁶ △이용일³
△전우대² △조영규²⁸ △황선주²⁷
△황정식²

◆CHCN △김미야⁹

◆APC △박희제¹²

◆HPM △김성곤²⁸ △김재영¹⁰
△박태화²⁰ △소정몽²⁰ △신현희²⁰
△심준보²⁶ △이영완¹ △이주국²
△장혜영²⁸ △정성민²⁸

◆AMPP △이상철⁵ △이종만⁵

◆AIC △권병직³³ △김석영²⁵
△신양인²⁴ △신원식³² △윤영기²
△이국세¹² △정상근¹ △차상훈³³
◆AFB △김성하¹² △김용식⁷
△마수진¹² △문창동¹² △박희성¹²
△양경애¹² △이건상¹⁰ △이원기¹²
△전희준¹² △조수환¹² △주호필¹²
△최요우¹² △허 훈¹²

◆AMPFRI △김진수⁷ △문용기²⁸
△매명섭⁹ △조형찬¹¹ △최병호²⁸

◆ACMP △김락중⁶

◆FIP △권일근⁹ △김시전⁹
△김영철⁹ △이신호⁷ △조진표⁹
△최주취⁹

◆GLP △김강수²⁵ △김광철²³
△김옥정¹⁰ △박희순¹² △이상동²⁴
△장수연²² △최만중¹² △홍영화¹⁶

◆ALP △김영진¹⁶ △김태유¹⁵
△김해연¹⁵ △문종복¹³ △박승원¹⁶
△이광재¹⁶ △이정재⁸ △장택근¹⁶
△최종환¹⁵

◆SPARC △김유경² △황보석¹

◆AFP △박수환⁷

◆ASP △김민철²³ △김중수¹⁷
△김진호¹ △노경학²¹ △오광진²³
△유태원¹⁶

◆IFP △김대하¹ △이건훈⁴
△이성건²

◆BCP △강예규⁷ △김영순¹⁰
△지용환¹⁰ △최수일¹



www.kftec.com

상장 기업
KRX 코스닥시장

2012년 3월 코스닥 시장 상장

The World Best Quality

KFTC Automotive Fuel / Interior System Supplier
업계최고의 기술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한 **코리아에프티**는 미래를 내다보며 중국 인도, 폴란드 공장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상품 인증

● FUEL SYSTEM



• CANISTER



• FILLER NECK



• INTAKE HOSE



• FUEL RAIL

● INTERIOR PARTS



• DUCT ASSY - CONN & DEFROSTER



• SUN SHADE



• PHIL ASSY - CLUSTER FACIA -LHD/RHD



• TRIM ASSY - RR PLR,LH/RH

글로벌 경영 대상 수상



Korea Headquarter, R&D Center
Aurang
Poland Factory
China Factory
India Factory
U.S.A Office Detroit

● Global Manufacturing



Poland Factory (KFTP)



India Factory (KFTI)



China Factory (BKFTC)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본사 및 연구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재리 산 115-1
TEL : 031-650-1500 FAX : 031-650-1517
판 고 사 무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S동 901호
TEL : 070-7093-1300 FAX : 031-789-3990

MAIN CUSTOMERS



HYUNDAI



KIA



GM DAEWOO



SSANG YOUNG MOTOR



GM



ETAT



RENAULT

안성 공장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재리 산 115-1 **죽산 공장**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66 **경주 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189-15
중국 공장 : BEIJING, CHINA **인도 공장** : CHENNAI, INDIA **폴란드 공장** : ZABRZE, POLAND

2013년 1월	
연 회 비	82,970,000
평생회비	52,500,000
입 회 비	260,000
계	135,730,000
2013년 누계	135,730,000

태양광발전 SMaFA 시스템

정부조달우수제품

조달청 (지정번호, 2011042)

SINCE 1961
Bokuk
www.bokuk.co.kr

2011년 '천만불 수출탑' 수상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	SMaPA 시스템
진 단	Array 단위 혹은 없음	Module 단위
통 신	유선통신 Inverter → PC	유·무선통신 Module Inverter → PC 스마트폰

* 특허방식의 장점

1. 모듈 고장이나 음영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설비 이용률 증대
2. 모바일서비스 등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유지보수 인력비용 저감
3. 최소단위인 Cell Line까지 음영, 고장 등 이상 유/무를 감시
4. 시스템의 과부하, 이상노후를 사전 방지
5. 모듈단위의 발전량 data수집으로 추후 모델별 최대 출력 추종 가능

제품의 구성



주요생산제품



보국전기공업(주)

본 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5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9 메가벤처타워 4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681-4

T 053. 615. 2111~5 / F 053. 614. 3552
T 02. 2278. 0880 / F 02. 2273. 8210
T 053. 571. 2111 / F 053. 571. 2117



(주) 리바트
www.neoce.co.kr

사무실의 공간미학

「NF7 700GROUP」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도시 감각의 디자인과 한 차원 앞선 기능성으로
미래형 사무가구의 기준을 제시하는 신개념 사무가구 네오스 "NF7 시리즈"
사무실의 작은 혁명을 이끌어 갑니다.

Neoce
Comfortable Office